

### 참고문헌

학생신앙운동본부, 「학생신앙운동ABC」, 서울:학생신앙운동출판부, 1996.  
 학생신앙운동본부, 「III-7 교과과정」, 서울:학생신앙운동출판부, 1993.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한국대학생선교회, 「10단계 성경교재」, 서울:순출판사, 1992.  
 존 칼빈, 「기독교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7.  
 김득용, 「기독교교육원론」,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1.  
 강창근,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고려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4.  
 정필용, 「제자훈련의 성경적 원리와 교육방법」. (고려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아이디스 V. 켈리, 「커리큘럼의 계획과 선택」,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BHS, BHQ, HUB의 사본학적 활용원리에 관한 연구

배현철

## 제1장 서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우리는 흔히 신학적 작업이나 주석의 출발점으로서의 성경 본문이 구약에 있어서는 히브리어(일부는 아람어)로 된 성경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언어로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우리는 단일의 원본이 아닌 다양한 사본들 앞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그중 어떤 사본을 선택해야 옳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아람어) 성경은 BHS라고 불리우는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 critical apparatus의 개정을 거쳐 BHQ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BHS나 BHQ는 본문으로서 B19a라고 표현되는 Leningradensis 사본을 제공하며 본문 하단에는 critical apparatus가 제시된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교에서는 Aleppo codex에 근거한 HUB(Hebrew University Bible)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 BHS에서 BHQ로 판을 거듭하게 되는 이유는 critical apparatus의 개정작업 때문이며 HUB에서는 BHS 및 BHQ에 비해 보다 나은 critical apparatus가 제공될 전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같은 critical apparatus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 왜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답들은 신학적인 것이며 기존의 많은 대답들이 신학적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존의 여러가지 대답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이 위의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전제 및 방법

우리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그 본문을 보존하신다는 관점(시 12:7-8, 사 40:8, 요 10:35)을 전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사본들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피되 그것을 본문보존의 역사라는 하나의 흐름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및 접근방법으로써 원본과 사본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과 그에 기초한 여러 학자들의 소위 본문비평 방법론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보존사의 관점에서 성경의 원본에 대한 이해와 사본의 선택문제, critical apparatus를 활용하는 개혁주의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3. 논문의 구성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구약성경의 본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살펴 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이론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구성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사본들을 본문 보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시대별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대표적인 본문 비평학자들의 본문비평 방법론을 조사하였고 제5장에서는 그들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리고 제6장은 본문보존 역사에 기초하여 현행 본문비평 방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7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언급하였다.

## 제2장 구약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론의 동향<sup>1)</sup>

### I. 사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사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콤파 사본이 발견된 194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다루어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1. 1947년까지의 연구

1947년에 처음으로 콤파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기까지, 성경의 본문은 많은 사본들에서부터 알려졌는데 그것들은 크게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된 본문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이 본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위계 체계에 따라 묘사되었다. 17세기 초기 사마리아 오경이 유럽에 알려졌을 때, 학자들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가지의 본문들로서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70인역의 히브리어 Vorlage를 가정하였고 나머지의 본문 증거들은 그것들 중의 하나 또는 다른 것과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지난 3세기의 문헌들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본문증거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두가지의 핵심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본문들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세가지의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단위들(세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찬' (recension), '본문형태'(text-type)라는 것들이다. 그러한 문헌에서 '개찬'과 '본문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이전의 본문들에 대한 모종의 편집행위(editing)를 포함한 본문전통에 적용된다. 한편, '개찬'이란 용어는 본문전통 또는 단순히 본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토라의 본문은 대개 세가지의 개찬 또는 본문형태로 나뉘어지는 하나의 실체로 묘사되는데, 그 세가지는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70인역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들 세 본문들을 핵심적이고 배타적인 축(axes)으로 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른 본문들이 하위 집단들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선지서들과 성문서의 본문은 때때로 세가지의 하위 집단들로 분류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

1) 본장의 내용은 주로 E. Tov 교수의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의 제3장에 의 존하였고, 그 외에도 각주에 인용된 문헌들을 토대로 엮어졌다.

가 유사하게 두개의 개찬들(이들 책들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론들, 기술들(descriptions), 용어들은 시대마다 변천을 거듭하였으나 토라에 대한 3구분법, 그리고 때때로 그러하긴 하였지만, 나머지 성경책들에 대한 3구분법이 줄곧 남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신념의 토대위에서 de Lagarde와 Kahle의 이론들과 같은 성경본문의 발전(development)에 대한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들이 구축되었다.

위에서 서술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한 더 진전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 개념들이 지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 개념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17세기에서 1947년까지는 본문 증거들의 관계와 성경본문 형성에 관한 위의 가정에 대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본문의 발전과정에 관한 최초의 철저한 묘사는 1915년 Kahle의 한 소논문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학자들이 각각의 본문 증거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였고, 간혹 그것을 마소라 사본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장들이 성경 본문의 발전과정을 전체로서 묘사하는 종합적인 서술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비록 성경본문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문 증거들의 관계에 대한 위의 가정이 그 용어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현세기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그 세가지의 본문들은 통상 '개찬들'이라 불리웠다. 때로는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예컨대 '에굽 개찬'(70인역의 히브리어 vorlage), '바빌론 개찬'(마소라 사본), 그리고 '사마리아 개찬'(사마리아 오경)이 그것이다.

용어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토라의 본문에 대해 Kahle가 쓴 영향력 있는 소논문이 출현하면서 부터이다. 이 논문에서 Kahle는 토라에 관한 주요한 세가지 증거들을 "drei Haupttypen des Pentateuchtextes"라 칭하였다. Kahle는 사실상 서로 다른 개찬의 과정을 겪은 세가지의 본문형태를 지칭하고 있었다. 예컨대 마소라 사본은 원래부터 현재의 형태를 지녔던 것이 아니라, 보다 초기의 본문들에 대한 개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약 100년경에 창출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Kahle의 혁신은 단지 용어상에 한정된 것이었지 그 아래에 깔려있는 개념에 있어서는 개찬이라는 용어로서 이전 세대에서 회자되던 생각을 단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 새 용어는 점차 학계에 침투하여 이제는 흔히 '본문형태'(text-types)로 언급된다. 많은 학자들은 그 동일한 실체를 언급함에 있어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

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컨대, de Lagarde는 개찬(recension)과 계열(family)을 교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본문이론을 고집하는 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혼합적 용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연구와 결론들은 본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한계들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언제나 소위 세가지의 중심 본문들간의 비교라는 한계속에 자신들을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마리아 오경은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관점에서만 평가되었다. 17세기 이후로 사마리아 오경과 마소라 사본사이엔 6,000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 사이엔 1900개의 공통된 독법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탄생하였다. 그런 견해들은 성경본문이 소수의 개찬들 속에서 유통되었으며, 모든 본문 증거들은 필연적으로 그들 중의 하나에 소속된다고 하는 좁은 소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리하여 70인역이 사마리아 오경에서 번역되었다는, 사마리아 오경이 70인역에 따라 개정되었다는, 또 역으로 70인역이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 개정되었다는 하는 주장들이 나돌게 되었다.

3구분법의 모델은 원래 토라에 대해 고안된 것으로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사본 및 70인역과 병행적으로 보존되었다는 이론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성경의 다른 책들에게까지 적용되었고, 특히 지역본문 이론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

## 2. 1947년 이후의 연구

본문 증거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1947년 콰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학자들은 여전히 개별 본문들의 위치를 3구분법이라는 기존의 틀 안에서 결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선지서들과 성문서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몇몇 학자들은 2구분법의 관점에서 고려하였으나,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3구분법을 고집하였다. 학자들은 또한 콰란 본문들을 본문형태의 개찬들이라는 관점에서 봄으로써, 이전의 연구흐름을 이어받았다.

개별적인 콰란 본문들을 특정한 본문 형태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DJD(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시리즈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70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의 유형에 속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콰란 본문들이 마소라 사본의 유형(type)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에 기초하여 콰란

두루마리들이 그것들의 발견 이전에 이미 알려진 세가지의 본문 집단들(마소라 사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에 소속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비록 콤파스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본문들이 마소라 사본에 귀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콤파스 본문에서도 여전히 세가지의 본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F. M. Cross, P. W. Skehan, S. Talmo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 3. 본문 증거들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마소라 사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이 성경본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주된 자료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콤파스 발굴 이전에 묘사되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변이들을 제공하는 다른 자료들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7년 이전에 이미 이 세가지의 본문 전승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묘사된 것은 옳았지만, 이들 증거들이 마치 성경본문에 대한 유일한 전승들인 것처럼 주장된 것은 잘못이었다.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새로운 본문들이 발견될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 주장은 그 때에도 잘못이었지만, 오늘날도 이들 본문이 개찬들이요, 본문형태라고 기술한다면 더 커다란 잘못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이들 전승들을 여러단계의 편집과 본문조작을 거쳐서야 현재의 형태를 지나게된 세가지의 별개의 개찬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로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본문 증거들의 3구분론에 대한 대안은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Hebrew University)에 재직중인 E. Tov교수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위에서 언급된 세가지의 본문 증거들이 훨씬 많은 수의 본문들 중 셋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제안은 본문에 대한 3구분론이 아닌 본문의 다수성 가정(assumption of multiplicity of texts)에 기초하고 있다. 본문들이 상호 결부되지 않아야 할 필연성은 없다. 왜냐하면 본문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집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일차적으로 개별적 본문들의 집합체이다. 그러한 개별적 본문들은 다시 그 성격에 있어서 모든 초기 본문들의 집합체이며, 일치와 차이라는 내부적 그물망 안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문 형태 또는 개찬이란 용어들의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본문 증거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이 용어들을 사용하려면 본문 증거들 간에 실제적으로 형태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즉, 각각의 증거가 독특한 본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정의상 한 본문 증거나 어떤 본문 형태 또는 개찬을 반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전

의 본문을 어떤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고의적인 노력이 나타나야 한다. 본문의 개찬들은 확장, 축약, 조화, 유대화, 기독교화 등의 경향과 같은 인식가능한 본문상의 특징을 지니거나 이들 특성들의 몇가지 조합을 지닌다. 하지만, 이것은 논의되고 있는 증거들 중의 두가지가 소규모의 단위들에서 유형적인 특징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마소라 사본은 모든 다른 본문들과 같은 본문을 반영하며, 특별한 성격은 전혀 지니지 않고 있다. 거기에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적 특성은 사무엘서가 약간 부패되어 있는 것 뿐이다. 70인역 역시 한 본문을 반영하지, 한 본문적 개찬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학적 개찬 즉, 마소라 사본, 페슈타, 탈굼, 벌게이트에 담겨있는 것과는 다른 문학적 편집을 담고 있음도 강조되어야 하겠다. 반면에, 사마리아 오경은 실로 토라 전체에 있어서 특정한 유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징들이 사마리아인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전-사마리아 본문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적 개찬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유사한 유형론적 특징들을 지닌 한 집단의 본문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Tov교수에 의하면, 성경의 증거들을 세가지의 개찬으로 나누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다음의 두가지 요인들의 합성에 기인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첫째는 중요한 종교적 집단들에 의해 그 세가지의 대표적인 성경본문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요, 그 두번째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신약의' 사본들에 대한 3구분설을 구약에다 끌어 들여 오는 것이다. 3구분설이 하나의 편견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본문 증거들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콤파스 본문들의 본문적 실상은 세 집단의 본문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콤파스 본문들의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다섯가지의 다른 집단의 본문들이 나타났다. 이중 세가지는 콤파스 본문 발견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 원-마소라 본문, 전-사마리아 본문, 그리고 70인역에 근접한 본문들이다. 다른 두 집단은 콤파스의 발견 이후에야 알려진 것으로 콤파스에서의 정자법과 형태론의 관습에 따라 쓰여진 본문들과 비제휴적 본문들(non-aligned texts), 즉 여타의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근접성을 지니지 않는 집단이다. 마지막의 두 집단은 모든 종류의 콤파스 본문들에 대해 특별한 차원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비제휴적 본문들은 본문 증거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그물망에 대해 특별한

빛을 비추어준다. 예를 들어 Freedman은 11QpaleoLeva의 위치를 3구본문의 범위 안에서 결정지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세가지의 주요한 본문 증거들 중의 어느 것보다도 연계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때로는 마소라 사본과 일치하였고 때로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거기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배타적인 독법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뿐만이 아니다. 4QDeut<sup>j,n</sup>, 4QJudg<sup>a\*</sup>, 5QDeut등도 두가지 또는 세가지 이상의 본문들의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세가지의 중심적인 성경의 본문 증거들로서 묘사되는 본문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고대적 본문들 중의 세가지 밖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논의와 관련된 본문 증거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석의 차원이 존재한다. 본문들의 관계는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들을 여타의 것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중대한 (불)일치점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즉, 마소라 사본의 계열은 다른 집단이나 개별적 본문들과는 다르며, 이는 70인역에 있어서나 사마리아 오경 및 전사마리아 본문들로 구성되는 집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불일치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 특정 논의의 수준에서는 일치점이 불일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그것들이 공통적인 오류등과 같은 아주 중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을 때 그러하다. 이 원리는 P. Maas에 의해서도 강조된 바 있다.

## II. 구약원본의 양상에 대한 논의

17세기 이후 마소라 사본과 70인역과의 비교연구가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별 독법들의 원본성(originality)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 개념을 명쾌하게 형성시킨 사람은 B. Walton이다. 또 원본에 관한 최초의 숙고는 G. L. Bauer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는 “마소라 학파 이전에 존재했던 구약 본문 즉, 저자의 친필(親筆)에 의해 등장한 본문의 재구성”에 관해 최초로 이야기 하였다. 또 성경의 원본에 관한 최초의 선명하고 체계적인 이론구성은 Paul de Lagarde에 의해 이루어졌다. de Lagarde의 이론구성 이후 성경의 원본의 존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자들은 한 때에 있었던 단일의 초고인 원본문(Urtext)<sup>2)</sup>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원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de

Lagarde와 Kahle가 그 쌍벽을 이루고 있다.

### 1. P. A. de Lagarde의 이론

de Lagarde는 마소라 사본의 모든 본문들이 그가 말한바 소위 마소라 사본의 “개찬”이라는 원형(archetype)의 구실을 하는 하나의 원천(source)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심지어 마소라 사본의 모든 본문들에 있는 미소한 세부사항들(예컨대 특별한 점들, puncta extraordinaria)의 동일한 전승은 그것들 모두가 하나의 원천에서 필사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주장은 70인역의 사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즉 그는 70인역의 모든 사본들 역시 하나의 원형(archetype)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더구나 de Lagarde는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최초의 초고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성경본문의 원형(original form)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학계에서 Urtext theory of de Lagarde로 알려져 있다.

de Lagarde의 통찰력있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비록 그의 견해에 따른,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원본형태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 Tov교수도 전반적으로 Kahle보다는 de Lagarde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 2. P. Kahle의 이론

P. Kahle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개별적인 본문 증거들과 성경본문 전체라는 양자의 원형(original form)에 대해 논하고 있다.<sup>3)</sup> 그에 따르면 이들 본문 증거들 중의 어느 것도 단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본문 증거들은 편집과 개정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었다. 그는 마소라 사본의 중세적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들에 기초하여, 그리고 Cairo Genizah 본문들과 Talmud에 인용된 성경에서 나타나는 변이들에 기초하여, 마소라 사본의 원본을 가정하기가 어렵다고 함주어 강조하며 de Lagarde를 반대하였다. 그는 70인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장한다. 즉 70인역도 단일의 변역 행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양한 변역들이 시도되었다가, 그것이 후기에 이르러서야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우리에게 대문자 사본들을 통하여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Kahle가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관해서 단일 원본의 가정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2) 또는 original composition이라고도 한다. Tov, 164-167.

3) Tov, 183-184.

우리에게 알려진 본문의 원천(source)들이, 그가 최초에는 Vulgartext(“통속적” 본문, “vulgar” text)라 하였고 후기에는 복수로 Vulgärtexte(즉 독법을 용이화하기 위해 창출된 본문들)라고 하였던, 중간적 원천(source)으로부터 생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 양자를 가리켜 그러한 본문들이라 하였고, 마소라 사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 100년경에 이루어진 세련의 단계를 거쳤다고 그는 생각한다.

요컨대 Kahle에 따르면 본문들은 다수성에서 단일성으로 발전해 갔던 반면, de Lagarde는 반대로 단일성에서 다수성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한다. 한편 Kahle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E. Tov는 다음의 여섯가지 점에서 Kahle를 비판한다.<sup>4)</sup>

① 비록 독법을 용이화하려는 본문들(Kahle가 말한 “통속적” 본문들)이 있었음은 의심할 수 없으나, 그것들이 Kahle가 그것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중심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 Kahle가 가정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른 시기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70인역과 1QIsab가 “통속적” 본문들이라는 Kahle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다.

③ 심지어 Kahle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조차도 마소라 사본이 후대에 편집된 본문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되지 못하였지만, 쿠파란자료들의 발견 이후인 현재 즉, BC 3세기 이후의 많은 원-마소라 본문들이 알려져 있는 이 때에 어찌 그런 공허한 주장이 통용될 수 있겠는가?

④ 비록 마소라 사본이 다른 본문들과 같이 미세한 변화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문의 개정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⑤ Kahle가 본문의 다수성 이론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자료였던 Cairo Genizah 본문들은 후기의 것으로서 제2 성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제1 성전기와는 더욱 더 거리가 멀다.

⑥ 고대의 본문들마저도 개찬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3. W. F. Albright의 이론

미국에서는 Albright에 의해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히브리어 본문증거들은 Albright 자신에 의해 초창기에는 “개찬들”이라고 불리다가 후기에는 “계열들”(families)로 불리운 집단들로 구분된다.<sup>5)</sup> 이들 집단은 특정한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 바빌론(마소라 사본), 팔레스틴(사마리아 오경, 역대기의 마소라 사본, 여러 쿠파란본문들), 그리고 애굽(70인역의 히브리어 Vorlage)이 그것이다. 이 견해는 특히 F. M. Cross에 의해 이어졌다.

한편 E. Tov는 Albright 등의 이론을 다음의 관점에서 비판하였다.<sup>6)</sup>

① 본문에 대한 특성묘사가 너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고, 증명될 수도 없다. 단지 팔레스틴 그룹에 대한 묘사만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 지지될 뿐이다(즉, 사마리아 오경의 유형적 특성들).

② 재구성된 70인역의 히브리어 Vorlage는 입증된 애굽적 특성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Aristee의 편지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처럼 팔레스틴 계열의 본문으로부터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③ 쿠파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들은 70인역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그것들을 애굽지역 본문과 연결시키려는 이론과는 정반대적이다.

④ 끝으로, 팔레스틴에 위치하고 있는 쿠파란에서 발견된 본문들은 여러 본문들의 혼합물로서 세지역의 본문들이 지니는 특성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이 사실은 local family이론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 4. S. Talmon의 이론<sup>7)</sup>

Talmon은 다양한 성경본문들이 지역본문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역사적인 변화와 사회종교학적인 상황을 통해 구약성경의 전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 마소라 본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이 여태껏 전수되어 온 것도 유대교 초기 기독교, 사마리아 공동체라는 종교적 집단들에 의해 그것들이 경전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대교의 공동체에 의해 보존된 쿠파란의 다양한 본문들은 표준화 이전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한다. 결국 탈몬은 다수의 본문전

5) Tov, 185.

6) Tov, 186-187.

7)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쿠파란 연구”, 성경원문연구, 1997. 8. 장간호(대한성서공회, 서울: 1997), p.148.

4) Tov, 184-185.

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E. Tov교수의 새 이론

E. Tov교수는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본문이론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먼저 성경본문의 시간적인 틀의 문제이다. 우선 하한선은 1세기 말인데 그것은 이때 이후로는 본문상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상한선은 분명히 정의되기가 어렵다. 상한선의 시작은 성경의 책들에 담겨 있는 구성물들이 완성된 시점이 될 것이다. 또 편집자들이 이른 시기의 구성물들에 그들 자신의 단어들을 삽입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하여 어떤 시기에 이르자, 그 문학적 성장이 완성될 수 밖에 없었다. Tov의 원본에 대한 견해는 de Lagarde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단일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여러 영역들(단어구분, 철자들의 어미형, 정자법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서기관들은 그들이 베끼는 사본으로부터 본문을 자유롭게 변경시켰다(interpolation 등). 비록 이러한 변경들에 내용까지도 포함되지만, 그 본문이 권위있는(정경적인) 위치에 서기 이전의 저자들 및 편집자들의 개입과 그 이후의 시대에 일어난 필사자들의 활동사이에 양적, 질적 구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사자들은 저자들 및 편집자들에 비해서 훨씬 소수의 그리고 소규모의 변경을 초래했을 뿐이며,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콥란 본문들에서 확인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및 몇몇 콥란 본문들과 같은 중대한 차이를 보이는 본문들이 통용되고 있었다. 이들 본문들은 하나의 공통된 “원래의”(original) 본문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학적 상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들을 하나의 공통된 줄기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이들 본문들이 정말로 하나의 공통된 본문에서 나온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본문에 대한 상이한 필사본들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면, 그 본문들을 비교하려는 어떤 경향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본문을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교정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유대광야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3세기 동안에 있

어서의 본문의 발전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견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성경책들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마소라 사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콥란 두루마리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 콥란 본문들은 팔레스틴 전체에 있어서 B.C. 3세기 중엽이후로 A.D. 6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좋은 통찰을 얻게해준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의 3세기 동안 팔레스틴에는 수많은 본문들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은 ‘본문의 복수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비록 이러한 본문의 복수성이 팔레스틴 전체의 특성이었기는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본문전승, 즉 마소라 계열의 본문들에 대한 선호를 보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맛사다에서 발견된 모든 본문들(A.D. 73년의 시기에 까지 이른다)이 마소라 사본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콥란의 본문증거들은 이 기간에 여러 가지의 본문들이 통용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의 다수성 상황속에서도 서로 다른 본문들을 만들어낸 두가지 주된 본문에의 접근법(two principal textual approaches)이 있었다. 그 첫째는 상대적으로 정밀성이 떨어지는 본문들로서, 일반적으로는 약간 잘못된 용어인 “통속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주로 대중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이었고, “대중적”이지 않은 본문들도 존재하였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것들 중에 몇몇은 특정집단에 의해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아주 잘 보존되었을 것이며, 예전(liturgy)에서 사용되었다. 비통속적인 본문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있다면 그것은 원-마소라 본문들인데, 거기에서 마소라 사본이 중세기 초에 발전하였다. 이들 본문의 경우 전승과정에서 꼼꼼한 주의가 기울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교정사항들”과 같은 변경과 교정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교정들(문단의 구분등)이 일어났다(예를 들어서 마소라 사본, 탈굼, 페슈타, Vulgate에 존재하는 사무엘서의 본문을 보라). 그 이외의 비통속적 본문에는 70인역과 비제휴적 콥란 본문들이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모든 통속적, 비통속적 본문들이 BC 3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의 고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수세기 동안의 본문의 복수성을 보여주는 시기가 지난 뒤 통일성과 안정성의 시기가 왔는데 그것은 1세기 말엽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본문전승의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종교적인 사건의 전개에 기인된 것이었다. 1세기 말엽 70인역은 기독교에 의해서는 수용

8) Tov, 187~197.

되었지만, 유대교에 의해서는 거부되었다. 사마리아 오경의 필사본들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공동체의 종파적 특성 때문에, 더 이상 유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광범한 범위의 본문들을 보존하였던 콤란 공동체는 70년이 후 사라졌다. 따라서, 그 당시에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의 주된 필사본들은 유대교의 핵심세력에 의해 필사되고 통용되었던 것들이었다. 따라서 Nahar Hever와 Wadi Murabba'at에서 발견된 Bar-Kochba시대의 본문들은 마소라 사본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의 실체로서 취급되었다. 그런데 개별 성경책들도 각각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Tov의 기본 입장이다. 각각의 성경은 다른 상황에서 발전하였으며 다른 시기에 정경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특정한 하나의 책에서 발견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변이 독법들의 수는 그것의 문학적 발전 및 본문전승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또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에 포함된 책들의 본문의 성격이 이들 본문들을 구성하도록 선택된 고대의 두 루마리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컨대 마소라 사본에 포함된 사무엘서의 경우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부패된 필사본이 우연히 마소라 사본에 들어가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마소라 사본에서 이런 부패성을 보이는 곳은 사무엘서 뿐이다.

### 제3장 구약성경의 본문보존 역사

우리는 제2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여러학자들의 구약 본문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에는 본문에 대한 실상을 일면 부각시키는 주장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본문의 보존에 대한 주장이 뚜렷이, 만족할 만하게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보존에 관한 성경자체의 분명한 언명에서 출발하여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고하는 방향으로 본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펼쳐 보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현재 출간되어 있는 BHS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간될 BHQ 및 HUB를 활용하는 바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1. 서 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지상사역 기간 중에 “성경은 폐하지못하느니라”(οὐ δύναται λυθῆναι ἡ γραφή, 10:35)고 선포하셨다. 여기서 λύω 가 Aorist 수동태로 쓰였다. Aorist는 진입적 Aorist의 의미로 쓰여 있으며 수동태로 표현된 동작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한 본문의 파괴, 파손, 붕괴, 가치하락, 신뢰성의 약화, 종식의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은 허물어지지(λυθῆναι)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특히 여기서 성경(ἡ γραφή)은 구약성경을 지칭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의 본문이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보존될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אִלְמָלַךְ יִפְּוֹ אֱלֹהֵינוּ וְדִבְרֵינוּ יִשְׁתָּבֵד יְהוָה 40:8)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10:35의 λύω 라는 단어와 반대어인 ἰσχυρῶς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확립되어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역사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보존사역이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대해 신실히 수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시 12:6-7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한글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도가니에 일곱번 단련한 은갈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로 번역하고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보존을 보여준다.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와 말씀들은 순결한 말씀들이어서 흠도 가  
니에 일곱번 제련된 은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것들을  
보존하시(지키사) 우리들을 보살피 주시리이다”와 같다. 여기서는 ‘지키다’, ‘보존하  
다’의 뜻인 *שמר*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보존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이를 말씀하시어 확증하셨다. 3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  
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해 볼 때 성령께서도 인간 저자들을 통해 계시를 기  
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통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의 본문 보존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본문이 얼마나 신실하게 보존되었나를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자세히 미루어 살펴  
보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우리는 롬 3:1-2에서 유대인의 마음이 첫째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았음이니라”(ὅτι ἐπίστεύθησαν 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  
따라서 3위 하나님의 구약성경의 본문보존 사역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손을 통하  
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약성경의 본문보존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의 성  
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70인역을 위시한  
Targum, Peshitta, Vulgate, 및 기타 언어(애굽어, 이디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된 성경을 살펴 볼 것인데 이러한 번역본들은 비록 마소라 사본보다 시기적으  
로 이르다 할찌라도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대한 간접적인 본문 증거로서의 위치만  
부여될 것이다. 즉, 우리는 본문보존의 역사를 살핌에 있어서 그 주된 흐름(main  
stream)을 히브리어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II. 모세시대에서 에스라시대까지의 본문보존 역사

구약성경 본문의 기록은 모세에서 시작되어 에스라 시대에 완료되었다. 히브리  
어의 역사가 BC 20세기 말까지로 소급된다는 Angel Sáenz-Badillos의 증언에 기초  
하여<sup>9)</sup> 우리는 모세가 친필로 기록한 토라 역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애굽에

서 체류했다는 점과 광야의 차세대가 그들의 직계 후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당시의 애굽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임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세시대 이후 에스라 시대까지를 우리는 ‘성경기록의 시대’라 부를 수 있  
을 것인데 이 시기에 구약성경의 계속적인 원본의 증보와 up to date 및 편집활동  
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레위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명기 31:24-26에서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레위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  
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에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토라의 자필 원본이 레위인들에게 위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구약성경의 본문의 보존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삼상 10:25의 말씀 역시 사무엘이 계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  
에 두고”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역대하 17:7-9, 35:3, 느헤미야 8:1-12  
등의 말씀도 구약 성경의 보존 및 교육이 레위인들의 손에 맡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III. 에스라에서 헬레니즘시대 초기까지(BC 6-4세기)의 본문보존 역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을 때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스 7:6).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당시의 국제어  
라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던<sup>10)</sup> 영향으로 말미암  
아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된 율법이 정방형의 아람어체로 전환되었다. 탈무드(바  
벨론 산헤드린 21b, 예루살렘 메길라 19)에 따르면 “비록 율법이 그(에스라)를 통  
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나 글씨체는 그에 의하여 바뀌어졌다”고 한다<sup>11)</sup>. 에스라의  
전통을 잇는 서기관들에 의해 늦어도 주후 1세기까지는 이미 구약의 기록 모두가  
아람어체로 전환되었음은 마 5:18에 비추어 알 수 있다<sup>12)</sup>.

김 경래 교수에 따르면 이 무렵 에스라를 비롯한 초기 서기관들의 영향과 바벨  
론 포로귀환 이후 유다의 정치 및 사회상황으로 미루어 구약성경의 본문은 거의  
큰 변화없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의 구약 본문은 얼마든지 ‘원(原)

9) A.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52.

10) 김경래, 사본들, 27.

11) 김경래, 사본들, 60.

12) 김경래, “퀀타 연구”, 123.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13)</sup>.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시대를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크게 에스라 이전과 에스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에스라 이후 시기의 특징은 고어체 히브리어가 모두 정방형체의 히브리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Sáenz-Badillos에 따르면 에스라 이전의 히브리어를 성경 히브리어(Biblical Hebrew, BH), 그 이후로부터 10세기까지의 히브리어를 랍비 히브리어(Rabbinic Hebrew, RH)라 한다<sup>14)</sup>.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즉, 구약 성경의 기록은 BH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것의 보존은 RH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마소라 본문은 A.D. 9-10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RH로 필사되어 있다. 그런데 구약의 정경이 완성된 에스라시대 이후로 BH에서 RH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본문보존 역사에 있어서 언어적 동질성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보존의 섭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이 모든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문서 보존의 사역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본문보존 역사에 있어서 성경기록시대의 구약본문의 보존은 성막과 제1 성전기에 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여야 하겠고, BH→RH의 필체 전환작업은 제2 성전기에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여야 하겠다. 즉 구약성경의 본문의 보존은 모두 성막및 성전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 IV. BC 3세기에서 AD 70년까지의 본문보존 역사

이 시기는 콤파 본문과 70인역 및 사마리아오경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앞으로 살펴보겠거나 콤파의 본문들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의 약 60%가 소위 원-마소라 본문들(Proto-Masoretic Texts)이다<sup>15)</sup>. 바로 이들 본문이 마소라 사본들 보다 1,0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엡센파 등의 분열로 혼란상태에 있었으며 성경 전수과정에 있어서도 일대 혼란기에 접어들어 여러가지 종류의 다양한 구약성경 본문들이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는 여전히 마소라 본문과 유사한 '원 마소라 본문들'이 차지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sup>16)</sup>. 실제로 콤파 본문이 다

섯부류로 나뉘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 마소라 본문의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문보존 사역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 더구나 '원 마소라 본문들' 이외의 사본들이 나타나는 변이독법들도 그 대부분이 어느 하나(특별히, 원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 마소라 본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같은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의 원본(original text)의 존재를 분명히 엿볼 수 있다<sup>17)</sup>. 또 콤파 자료들은 우리에게 BH→RH의 전환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소라 학자들의 사본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이 보존해 온 본문유형과 동일한 본문유형이 사해 사본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여러 서기관들이 본문을 충실하게 보존해 왔다는 믿기 어려운 업적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른 본문과는 대조적으로 이 본문에는 많은 고어형태가 있으므로 이 본문이 원문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어떤 부류의 서기관들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준다<sup>18)</sup>. 물론 이 모든 사실들은 그 배후에서 자신의 옛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보존하고 계시는 3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

한편 BC 330년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페르시아가 무너진 이후 헬레니즘 문화는 이스라엘 땅, 디아스포라 할 것 없이 거칠 것 없는 세력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다<sup>19)</sup>. 자기들의 종교적 생존에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은 드디어 '거룩한 말씀' 자기들의 일상생활 언어인 헬라어로 옮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필요의 결과가 바로 70인역의 탄생이다. 먼저 B.C. 3세기에 토라가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 세기까지는 느비임(선지서)과 크투빔(성문서)이 모두 번역됨으로써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성경은 오랜 은둔을 깨고 헬라어라는 옷을 입고 그 당시의 세계에 노출되었다<sup>20)</sup>.

#### 1. 콤파 본문들

E. Tov교수에 따르면<sup>21)</sup>, 1947년 이후 콤파의 제 1-11동굴에서 발견된 본문들은

13) 김경래, "본문전래과정", 152.

14) A. Sáenz-Badillos, 166.

15) Tov, 115.

16) 김경래, "본문전래과정", 152-153.

17) 김경래, "본문전래과정", 153.

18) B. K. Waltke, "구약의 본문비평", 266.

19) 김경래, "본문전래과정", 152.

20) 김경래, 사본들, 31.

무려 800여개에 이른다. 이중 biblical scrolls의 단편들은 190개 이상이다. 그 단편들의 대부분은 작은 것으로서, 성경의 개별 책들의 1/10이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 전권이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 1QIsa의 경우가 그것이다(1QIsa란 기호에서 1은 동굴번호를, Q는 Qumran을, Is는 이사야를, a는 첫 번째 발견물을 뜻한다). 1QIsb에서는 조화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1QIsa에서는 많은 조화현상이 있다<sup>22)</sup>. 이 본문들의 서체(script)는 아주 미소한 단편만 보존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본(copies)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사이에 있어서 주된 구별기준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단편들에 기초해서 두루마리의 수를 추정할 경우에는 주의가 요청된다. 만일 어떤 특정한 두루마리들이 한사람 이상의 서기관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한 성경의 책에 대해 다른 서체(scripts)로 쓰여진 적어도 두 단편들이 그 scroll에 귀속된다.

쿰란의 단편들에는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제외한 모든 성경이 존재한다(단,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에스라라는 하나의 단편에서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Tov와 Brotzman이 제시하는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본문들의 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결합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본문들

성경	동굴번호(B)				글자형태(T)		Notes(T)
	#1	#4	#11	기타	Assirian "Square" Script	Paleo-Hebrew Script	
창	1	12		3	16-17	3	둘은 출애굽기를 포함: 4QGen-Exod <sup>a</sup> , 4QpaleoGen-Exod <sup>b</sup>
출	1	12		3	13	1	창을 보라
레	1	4	1	2	5	4	하나는 만을 포함 4QLev-Num <sup>a</sup>
민	1	2		3	5	1(?)	레를 보라
신	2	18		5	25	2	
수		2			2		

21) Tov, 101-117.

22) 김경래, 사본들, 161.

성경	동굴번호(B)				글자형태(T)		Notes(T)
	#1	#4	#11	기타	Assirian "Square" Script	Paleo-Hebrew Script	
삿	1	2			3		
삼	1	3			4		
왕		1		2	3		
사	2	15		1	20-24		
렘		3		1	6		
겔	1	1	1	1	6		
12 소선지서		7		1	8		
시	3	17	3	4	34		
욥		3		1	3		
잠		2			2		
룻		2		2	4		
아		3		1	4		
애		1		3	4		
전		2			2		
단	2	5		1	8		
에스라- 느헤미야		1			1		
대		1			1		

\*B와 T는 각각 Brotzman과 Tov를 뜻한다.

자료원: Tov, 104-105 ; Brotzman, 93.

<표 1>에서 나타난 쿰란 사본들은 다음의 다섯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① 쿰란의 관행에 따라 쓰여진 본문들(Texts Written in the Qumran Practice)
- ② 원 마소라 본문들(Proto-Masoretic Texts)
- ③ 전 사마리아 본문들(Pre-Samaritan Texts)
- ④ 70인역의 히브리어 원천으로 짐작되는 것에 근접된 본문들(Texts Close to the Presumed Hebrew Source of LXX)
- ⑤ 비제후적 본문들(Non-Aligned Texts)

Brotzman에 따르면<sup>23)</sup> 콤란 사본은 여타의 성경 연구분야에 비해 사본학에 있어서 최대의 중요성을 지니며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사해 사본들은 이전에 알려진 히브리의 사본 증거보다 약 1,000여 년이나 더 이른 본문이다. 콤란 사본 발견 이전의 구약 각권에 대한 완전한 사본으로의 가장 초기의 것들은 약 10세기 초기의 시기에 속하였다. 구약 전체가 포함된 완전한 사본으로서 가장 초기의 것은 11세기까지 소급된다. 따라서 사해사본들은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본문증거를 보여준다.

2) 콤란 사본들을 마소라 사본들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지극히 미소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놀라운 정도의 일치성을 보인다. 따라서 콤란 사본들은 비록 마소라 본문에 비해 훨씬 이른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마소라 사본의 신뢰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콤란 사본들은 한편에서는 마소라 사본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BC 2세기에서 AD 1세기까지의 본문들에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본문 형태들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 광야에서의 발견들이 있기 이전에는, 본문 비평가들이 70인경의 번역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본문의 대리적 형태(alternate form)를 제시함으로써 오직 간접적으로만 본문의 상태를 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콤란 사본들은 본문 비평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본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지만, 70인경과 사마리아 5경의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도 있고 이전에 알려진 본문 형태와는 연계되지 않는 여타의 것들도 존재한다. 콤란의 발견물들은 본문비평 분야를 변혁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

E. Tov교수에 따르면<sup>24)</sup> 콤란 본문들은 제2 성전기의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 1947년 이전에는 제2 성전기의 히브리어 본문들에 대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47년 이전의 학자들은 그들의 분석을 주로 중세기의 사본들에 의존하였다. 콤란 증거는 다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켜준다.

1)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독법들은 성경 본문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2) 앞에서 Tov에 의해 제시된 다섯 부류의 본문들 속에 반영된 본문의 다양성은 제2 성전기의 성경 본문의 상태에 대한 훌륭한 조감도를 제시해 준다.

3) 그 두루마리들(scrolls)은 제2 성전기의 성경 본문들에 대한 필사와 전송의 기술적 측면들(technical aspects)에 관한 배경적 정보를 제시해준다.

4) 고대 번역본들, 특히 70인역의 신뢰도가 콤란 본문들에 의해 강화된다. 70인역은 성경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들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므로 그것의 히브리어 원천(Hebrew source)은 그 언어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했다. 그러한 세부사항들 중 많은 부분에 대한 재구성 결과가 이제 콤란 두루마리들에 담긴 동일한 히브리어 독법들(identical Hebrew readings)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콤란 증거는 여러 번역들의 히브리어 재구성 절차를 지원해준다.

또 김경래 박사는 콤란 사본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sup>25)</sup>.

1) IQIsa는 이사가서가 제작된 이후로 몇백년 지나지 않아서 필사된 고대사본이다. 그 전체 내용에 있어서 이 두루마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HS의 마소라 본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도 IQIsa는 후기의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이차적인 요소들' 즉 각종 오류, 수정의 흔적들, 조화현상들을 더 많이 담고 있어서 그 유명세와는 달리 사본학적으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 졸렬한 사본이다.

주후 10세기 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알렙포 코덱스와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대표되는 벤 아셀의 마소라 사본들은 그 전수과정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이들 벤 아셀 사본들로 하여금 IQIsa같이 그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사본들까지도 능가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 되었다.

2) 콤란의 하박국 주석의 성경본문은 104곳에서 마소라 성경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46%에 해당하는 48군데의 경우는 철자법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나머지 56군데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사한 언어적 차이만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으며 이러한 근소한 차이점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마소라 성경의 본문과 심각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23) Brotzman, 94ff.

24) Tov, 117.

25) 김경래, 사본들, 163-164, 178-187.

2. 70인역<sup>26)</sup>

70인역은 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유대인의 역본(Jewish translation)이다. 70인역의 히브리어 원천(source)은 다른 본문증거들(및 많은 콤파본문들)과 크게 달랐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경연구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70인역은 초기의 주석(exegesis)에 대한 자료로서도 중요하며 이 역본은 신약성경의 많은 요소들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70인역이란 명칭은 70인(+2인의 장로들)이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했다(Aristeas의 서신)는 데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1세기에는 모든 번역된 성경을 포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글들까지 포함한 유대-헬라성경(Jewish-Greek Scriptures)의 전부를 포괄하게 되었다.

오늘날 70인역이란 명칭은 헬라어로 번역된 원본을 가리키기도 하고 현재의 형태로 모아놓은 헬라어 성경(sacred Greek writing)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첫번째 용어는 정확하지가 못한다 그 이유는 70인역이란 명칭이 헬라어로 쓰여진 저작들 뿐만 아니라 그 번역본의 후대 개역본들/개찬들과 번역원본까지도 포함하는 집성물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보통 70인역이라 불리우는 헬라어 성경들의 집성물과 고대 헬라역이라 불리우는 번역원본을 구분한다.

추정되는 원래의 번역은 두가지의 자료원으로부터 알려진다. 그 대부분은 헬라어 성경들의 집성체속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의 학자들이 다양한 후대의 자료들로부터 재구성해 놓았다. 70인역 안에 포함된 책들의 집성체의 다양한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용부호를 붙여 “칠십인역”이라고 표기한다.

“70인역” 안에는 두가지 유형의 책들이 있다.

(a) 24권의 정경들에 대한 헬라어 번역

이 책들은 성경연구, 특히 본문 비평에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b)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성경 집성체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 - 헬라어로는 Apocrypha(숨겨진 책들), 히브리어는 *hisoniyyim*(the outside books)라 불리운다. 이 책들은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그 히브리어 대본이 분실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보존된 책들의 헬라어역

② 원래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저작물들(예컨대, 솔로몬의 지혜서)

또 70인역에 포함된 24권의 히브리어 정경의 배열순서에도 차이가 있다. 히브리어 성경의 책들은 정경으로 수록된 단계들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헬라어 역은 문학장르에 따라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 율법서들과 역사서들

② 시가서 및 지혜서들

③ 선지서들 - 몇몇 사본 전통들에서는 뒤의 두부분(②와③)이 역순으로 나타나기도 함

각각의 부분 안에서도 헬라어 성경들은 24권으로 된 히브리어 성경과 순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외경들은 그 문학적 장르에 따라 세 부분으로 묶여져 있다.

## 1) 70인역의 원래 형태와 그 시기

de Lagarde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각 책들에 대한 개별적인 번역원본이 한때 존재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그 번역원본을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나 Kahle를 비롯한 소수의 학자들은 반대의 입장이며 탈굽들의 경우에 있어서 처럼 여러가지 형태의 번역을 위한 시도가 처음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Aristeas의 서신에 따르면 토라가 번역된 것은 BC 3세기의 애굽에서의 일이다. 이러한 개정은 콤파본과 애굽에서 나온 토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파피루스나 가죽조각들(leather fragments)의 초기성과 잘 부합된다. 콤파본 및 애굽에서 나온 몇몇 토라의 경우(4QLXXLeva, 4QLXXNum, Pap. Fouad 266, Pap. Rylands Gk. 458), 그 시기는 2세기 중기나 말기에 해당된다.

선지서들, 성문서들, 그리고 외경들의 번역은 토라이후에 이루어 졌으며 이들 번역문들의 대부분 즉 후기선지서들, 시편, 벤-시라 등의 헬라어 번역본의 경우 선지서와 성문서의 책들에 대한 헬라어 번역본이 1, 2세기 말경 벤-시라의 손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선지서들과 성문서의 대부분이 2세기 초나 그 이전에 번역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개별책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다. 역대기는 2세기 중엽 Eupolemos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읍기는 1세기 초기 Pseudo-Aristeas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사야서의 번역은 170-150년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26) Tov, Textual Criticism, 134-142.

70인역의 개정은 BC 1세기 이후로 이루어져 왔다. 사무엘서-열왕기의 일부는 AD. 1세기 초까지에 이른다(전도서가 만일 번역되었다면 Aquila에 의해 번역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70인역에 포함된 가장 후대의 번역과 또 다른 번역 사이에는 400년이란 시간 차이가 난다.

## 2) 본문 증거들

70인역에 대한 본문 증거들의 수는 많다. 그 직접적인 증거들로서는 파피루스 조각들과 손으로 베껴쓴 것들이 있고 간접적인 것들로는 70인역에서 나온 번역물들과 초기 저자들에게 의한 인용문들이 있다.

### (1) 직접적인 증거들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인 70인역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허다하다. 이들 증거들의 시대는 BC 2세기에서 중세 후기까지 이른다. 70인역의 증거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들에 대한 구별이 요구된다.

① scrolls와 codices를 포함한 papyrus와 가죽

② 4세기 이후의 대문자로 쓰인 uncial(uncialis) 또는 majuscule(majusculus) manuscripts

③ 중세이후의 것으로 소문자로 쓰인 minuscule(minusculus) 또는 cursive manuscripts(초서체 사본들)

이를 좀더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BC 2세기 이후의 것으로 시대 추정되는 초기 본문들은 주로 토라의 단편들에 해당하는 것 들인데, 팔레스틴과 애굽에서 발견되었다. 이 단편들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Hexapla이전 시기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 자료들의 본문 전통은 3세기 이후의 초기 전통 들의 대부분을 대치하였다. 많은 파피루스 조각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31년 애굽에서 발견된 Chester Beatty/Scheide의 집성체이다. 이 집성체에는 대부분의 성경책 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다니엘서를 담고 있는 파피루스가 중요한데(번호로는 967-8번), 이는 다니엘서의 70인역에 대한 유일한 본문 증거이다(후기의 Hexapla manuscripts를 제외하면). 다른 사본들의 경우와 초기 편집물에서는 다니엘서에 대한 Old Greek version이 없고 그대신 "70인역"의 전집(corpus)속에 있는 번역원본을 대치한 Theodotion역이라는 개정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콤파에서 발견된 70인역의 가죽 조각들 중 DJD IX에

서 출판된 4QLXXLeva가 특히 중요하다. 이 본문에는 다른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레위기의 번역이 담겨있다. Skehan에 따르면 다른 본문들은 마소라 사본에 따라 수정된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이 조각(fragment)에는 70인역의 원본이 담겨 있다.

둘째로, 4-10세기에 걸친 대문자 사본(uncial manuscripts)은 70인역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된 자료원이다. 70인역의 전체 또는 거의 전체의 책들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본에는 셋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티칸 사본(B), 사내 사본(S), 알렉산드리아 사본(A)이다.

① B(Cod. Vat. Gr. 1209, "Vaticanus"로 표시된다)의 시기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codex B는 70인역에 대한 가장 완전한 사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편집판들의 대본이 된다. 그것은 부패(corruptions)와 70인역의 개정본들(revisions)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본이다. 동시에 그것의 이사가 본문은 Hexapla적이며, 사사기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의 개정역(revision)을 담고 있다.

② S 또는  $\aleph$  (B. M. Add. 43725, "Sinaiticus"로 표시됨)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Codex S는 보통 70인역의 본문과 일치한다. 그것은 이 두가지가 고대 헬라어역을 반영할 때 그러하다. 하지만 S는 70인역의 후기 개정본(revision)의 영향을 받았다. 이 사본은 19세기 중엽에 C. von Tischendorf에 의해 사내반도(이 사본의 이름은 여기서 따온 것이다)에 있는 캐터린 수도원에서 러시아로 반입되었다.

③ A(B. M. Royal MS. IDV-VIII "Alexandrinus"라 지칭된다)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Codex A는 Hexapla의 전통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러 책들에서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A의 필사자(scribe)는 종종 본문을 유사한 구절들(similar verses)에 적응시켰으며 동화요소가 가미된 세부사항들(harmonizing details)을 첨가하였다.

셋째로, minuscules로는 9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많은 소문자 사본들이 알려져 있다. 비록 minuscules가 상대적으로 후기의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고대적 전통등을 보존하는 경우가 자주있다. 예컨대 Lucian의 전통은 Cambridge editions에서 b, a, c2, e2로 표시되는 네가지의 minuscules에서 주로 알 수 있다.

(2) 간접적인 증거들 : 70인역의 子譯들(daughter translations)

1세기에는 70인역이 기독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이었으므로, 동서방 교회의 필요

에 따라 많은 번역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들은 1세기의 70인역과 그 개정본(revisions)을 이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3) 성경연구에 있어서의 70인역의 중요성

여러가지의 성경의 증거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마소라 사본, 몇몇 Qumran scrolls, 그리고 70인역이다. 70인역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모든 다른 번역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중요 이독들이 아주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역본의 히브리어 원천들 중의 많은 세부 내용들이 재구성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들이 고도의 문자적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70인역의 중요성은 특히 다음의 여러 책의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 ① 창세기: 계보들, 시간적 자료
- ② 출애굽기: 35-40장에 있는 성막건축에 관한 두 번째의 말씀
- ③ 민수기: 순서상의 차이들, 절들의 추가와 삭제
- ④ 여호수아: 중요한 위치변경(transpositions), 추가들, 삭제들
- ⑤ 사무엘-열왕기상하: 크고 작은 많은 차이점들, 여기에는 추가들, 삭제들, 위치 변경들이 있고, 시간적, 편집구조적 차이들이 포함된다.
- ⑥ 예레미야: 순서상의 차이들, 훨씬 더 짧은 본문
- ⑦ 에스겔: 약간 짧은 본문
- ⑧ 잠언: 순서상의 차이들, 다른 본문
- ⑨ 다니엘, 에스더: 완전히 다른 본문, "외경적"(apocryphal)인 것으로 취급되는 많은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기도 하다.
- ⑩ 역대기상하: "synoptic" variants(병행 본문들에서 마소라 사본과 일치하는 역대기 상하의 헬라어 번역의 독법들)

이상의 자료들 중의 일부는 히브리어 성경의 문학적 발전(literary development)과 상관이 있다.

### 3. 전 사마리아 본문들과 사마리아 5경

Tov교수에 따르면<sup>27)</sup> 사마리아 5경은 토라의 본문을 담고 있으며, "초기" 히브

리서 사본(script)의 특별한 version에서 쓰여진 것으로, 수세기에 걸쳐 사마리아 공동체에 의해 보존된 것이다. 이 본문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들(ideological elements)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은 단지 얇은 층(a thin layer)을 형성하여 본문에 부가되어 있을 뿐이다.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5경의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쿵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초기의 전 사마리아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변경되었다. 전(前) 사마리아 본문은 보다 오래된 것으로 그것들에 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5경과 전 사마리아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미소하여 전 사마리아 본문들의 특성은 사마리아 5경에 있어서도 내재한다.

#### 1) 배경

이 본문은 자음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본문과 병행하여 발전되었던 독법의 전통(reading tradition)은 구전의 단계로 남아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음 기호들을 개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의 일부라도 후기 사본들에 삽입된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나마 방법적인 일관성도 없다. 최근에 와서야 사마리아 인들은 모음이 완전하게 달린 소수의 사본들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reading tradition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인서체전환(transliteration)방법에 의해 기록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Ben-Hayyim에 의해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reading tradition은 사마리아 5경에서 번역된 아랍어, 아랍어의 번역문 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마리아 5경의 필사전통(scribal tradition)은 쿵란 scrolls의 많은 부분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유대인의 성경인 마소라와도 여러가지 유사성을 지닌다. The samaritan Masorah는 parashiyot와 그 숫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정된 문어체 형태(the fixed written form) 뿐만 아니라, 초기에 것에 있어서는 마소라의 액센트와 유사한 음악적 지시사항들(musical directions)도 지니고 있다.

사마리아 5경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현존하고 있던 본문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Samaritan"이라는 서술적 명칭은 거의 적절하지 못하다. 이 본문의

27) Tov, 80-100.

내용과 유형적 특성들(typological characteristics)은 콤파에서 발견된 전 사마리아 본문들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즉, 사마리아 5경은, 고대의 전혀 종파성이 없는 본문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본문들 역시 원(原) 사마리아(proto-Samaritan)본문이라 명명된다. 그러나 이 용어가 종종 초기 본문들 속에 사마리아적 특성들의 맹아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사마리아(pre-Samaritan)본문이라는 용어가 더 낫겠다. 따라서, 원 마소라 본문들이 중세의 마소라 사본과 공통되는 특성을 충분히 갖는 반면에, 전 사마리아 본문들은 비록 마소라사본과 많이 일치되기는 하나, 사마리아의 이데올로기적 특성들(the ideological Samaritan features)은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2) 시대 및 기원

현재 형태의 사마리아 5경에는 사마리아 본문(a Samaritan text)이 반영되어 있고 세겜 및 그리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17세기에 사마리아 5경의 본문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초기"의 히브리어 서체(script)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originality를 지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마리아 본문들이 그러한 히브리어 서체(script)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유대인의 성경보다 더 오래된 본문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서체(script)의 specific version을 paleographical analysis하면 그러한 보존된 본문들이 하스모니안 시대에 기원하는 script의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 5경의 Abisha' scroll에 있는 번역(colophon)은 이 두루마리를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들 Abisha'에게 돌리고 있으나 학자들은 이 scroll이 12, 1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믿고 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국가 초기에 생겨난 것이라 믿고 있지만 왕하 17:24-34는 그들이 BC 8세기에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로 옮겨진 민족이며 이스라엘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라서 사마리아 공동체가 생겨난 시대를 BC 5세기, 2세기 등으로 다양하게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추정이 사마리아 본문에 대해 필연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비사마리아적 또는 전 사마리아적 하위층(non-Samaritan or pre-Samaritan substratum)이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리 말하여 사마리아 본문(the Samaritan

text)이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3) 본문의 특징

사마리아 5경의 특징은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 볼 때 잘 드러난다. B. Walton, E. Costellus, 그리고 J. Lightfoot 등은 마소라사본과 사마리아 5경을 비교해 본 결과 6,000군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1657년의 연구결과이며 최근의(1979) Z. Metal에 의하면 이 6,000군데의 차이들 중 1,900군데에서 사마리아 5경과 70인역이 일치되고 있다고 한다.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전-사마리아 본문들(pre-Samaritan texts)을 조사해 보면 사마리아 5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대체로 이 본문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를 자주 피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콤파 사본들의 발견이 없었다면 이러한 층들은 규명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pre-Samaritan substratum과 사마리아 5경에 첨가된 제2의 Samaritan layer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의 층은 상대적으로 얇으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본문이 의존하고 있는 바의, 그 pre-Samaritan text를 확실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두층을 분리하는 기준은 한편으로는 pre-Samaritan text의 특징들이며(이로써 우리는 사마리아 5경의 하위층을 분리해 낼 수 있다), 다른 사마리아의 종교, 문학, 언어의 특징들이다(이에 의해 우리는 사마리아의 5경의 제2의 층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사마리아 5경 첫번째 층은 마소라사본과 비교해 볼 때 ① 동화적 변경들(Harmonizing Alterations), ② 언어적 교정, ③ 내용상의 차이점들, 그리고 ④ 언어적 차이점들을 보인다. 사마리아 5경의 두번째 층은 마소라사본과 비교해 볼 때 ① 이데올로기적 변경들(ideological changes), ② 음성학적 변경들(phonological changes)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마소라사본과 사마리아 5경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확장현상이다<sup>28)</sup>. 사마리아 5경의 사본들 중 가장 오랜 것은 대략 주후(主後)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다른 사본들에 비해 결코 오래된 것이라고는 볼 수

28) 김경래, 사본들, 256-283; Kyung-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94, 311-330.



었다. 따라서 종래의 학자들은 확장현상이 상당히 후대(後代)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콤파 사본들의 발견으로 이 현상이 이미 주전 2세기 전후에도 유대인 가운데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현상은 사마리아 분파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제2 성전시대에 확장현상을 지닌 오경 사본들이 유대인 중에 상당히 배포되어 있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한 사본들 중 하나를 자기들의 모범 사본으로 삼은 후, 자기들의 분파적 요소를 첨가하였음에 틀림없다(김경래, 257).

사마리아 5경에서 확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40곳이며, 이는 다음의 다섯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경래, 258).

- ① 신명기를 토라의 다른 책들과 조화시키려는 경우(20)
- ② 명령과 실행(특히, 출애굽기의 10대 재앙)(10)
- ③ 같은 책의 비슷한 문맥을 통하여 보충하는 경우(5)
- ④ 확장내용의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3)
- ⑤ 사마리아인의 분파적 목적에 의한 확장현상(2)

#### V. AD 70년에서 AD 8세기까지의 본문보존 역사

A.D. 70년은 제2 성전이 파괴된 해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된 사건은 유대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 여파로 성경 보급과정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어느정도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즉, 종래의 자유분방한 분파간의 대립은 사라지고 '바리새파가 주축을 이루는 랍비 유대교로 굳어지면서 구약성경 역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으로 필사되어 갔을 것이다. 이 무렵 유대인들에 의하여 기록된 사본들 중 Seberus 두루마리만 제외하고 A.D. 73년 이전의 것인 맛사다에서 발견된 사본들과 A.D. 130년 이후의 것들인 나할 헤베르와 와디 켈렐림, 그리고 와디 무랍바이트에서 발견된 사본들, 후기 탈굼, 랍비 문헌의 인용문 등 모두가 마소라 성경과 동일한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sup>30)</sup>. 이는 주후 70년을 전후하여 유대인 사이에 구약성경사본이 통일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좋은 증거이다. 이때부터 서기관들의 생 각이 본문을 보호하려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성경 자음본문의 전달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중요한 발전은 없었다<sup>31)</sup>.

29) 김경래, "전래과정", 153.

30) Tov, 33, 119-121, 195. 김경래, "퀀타연구", 131.

31) B. K. Waltke, "본문비평", 269.

또 유대교 입장을 견지하는 헬라이어 역본들(아퀼라, 쉘마쿠스, 테오도치온) 역시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고 있으며, 게다가 오리겐의 Hexapla, 제롬의 Vulgate, 그리고 Peshitta와 같이 이 시기에 기독교권에서 이루어진 작업들도 이미 통일된 히브리어 본문의 방향으로 조정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sup>32)</sup>.

따라서 A.D. 70년 이후로 A.D. 8세기 까지의 시대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구약성경 본문보존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요컨대, 주후 70년에서 주후8세기까지의 기간에는 콤파외의 사해일대에서 발견된 사본들, 아람어 Targum의 등장, 70인역 이외의 다른 그리스어 역본들(아퀼라, 테오도치온, 쉘마쿠스), 오리겐의 Hexapla, 시리아어역인 Peshitta, 제롬의 Vulgate, 70인역에서 번역된 다양한 역본들(라틴어 구역, 애굽어역, 이디오피아어역, 아랍어역, 고트어역, 아르메니아어역, Georgia어역)로 특징지어진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콤파 이외의 사해일대에서 발견된 사본들<sup>33)</sup>

성경사본들은 주후 73년 이전의 것이며, 와디 헤벨과 와디 켈렐림, 그리고 와디 무랍바이트등지에서 발견된 성경사본들은 주후130년 이후의 것들로서, 사실상 마소라성서와 동일한 성경문서들이다. 이것은 주후70년을 전후하여 유대인 사이에 구약성경 사본간에 통일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 2. 구약의 아람어 역본들: Targumim

Targum이란 말의 의미는 설명, 주석, 번역 등을 의미한다<sup>34)</sup>. 다양한 성경번역들 중에서 Jewish Targumim(사마리아 탈굼에 반대된 개념)은 유대교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중세의 주석가들을 자주 이를 인용하였으며, Rabbinic Bible에서는 그 본문들이 히브리어 본문과 병행하여 전량 인쇄되었다. 거의 모든 성경(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만 제외)에 대한 상이한 탈굼들이 만들어졌다.

아마도 Jewish Targumim중 일부는 원래 구두로 생성되었다가 후기에 와서야 문자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 출발에 있어서 아람어 번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32) 김경래, "전래과정", 153-154.

33) 김경래, "퀀타연구", 131.

34) Tov, 149.

체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히브리어와 너무 근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 성전기에는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은 감퇴되고 그 자리를 아람어가 채우게 된다. 따라서 유대 백성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다.

비록 전승에 의하면 최초의 탈굼이 에스라에게 돌려지지만, 언제 최초의 탈굼이 생산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어쨌거나, 쿰란에서 발견된 탈굼의 단편들은 초기의 것이다. 자유로운 탈굼과 문자적인 탈굼이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탈굼들이 더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탈굼들에서 반영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사본에 아주 근접해 있다. 단, 쿰란에서 발견된 율기의 탈굼은 예외이다. 그것은 때때로 다른 본문 증거들에서 일탈된다. 쿰란에서 발견된 단편들이 보존된 탈굼들 중에서 가장 이른 본문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탈굼들 역시 한때는 더욱 마소라 사본에서 일탈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본문에 맞추어졌다고 본다. Targum들의 종류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35)</sup>.

### 1) 토라에 대한 탈굼들

#### (1) Targum Onqelos

Targum Onqelos는 탈굼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개종자 Onqelos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때 랍비들인 Eliezer와 Joshua가 지도하였다.

탈굼 옹겔로스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분분하여 그 시기에 관해서는 1세기설, 3세기설, 5세기설이 있고, 그 기원에 관하여는 바벨론설, 팔레스틴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것의 최종적인 문학형태가 후기의 것이라 하더라도, 쿰란에서 발견된 레위기의 단편들에 담겨있는 것과 유사한 문서적, 또는 구전적 형성물보다는 앞설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탈굼 옹겔로스는 성경의 평범한 의미를 따르고 있으나 시(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주석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거의 변함없이 마소라 사본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 Vorlage는 확장된 주석층들에 가려서 쉽게 인식될 수 없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Sperber는 탈굼 옹겔로스에서 650개의 변이들을 발견하였으나, 그것들 모두가 미소한 세부사항들에 불과하였다.

#### (2) Palestinian Targumim

##### ① 예루살렘 탈굼 I = Targum Pseudo-Jonaghan

14세기 이후로 이 번역은 Targum Jonathan이라고 잘못 불려졌다(약자인 "ת" = Targum Yerushalmi로부터). 이 번역 역시 탈굼 옹겔로스에서 그 요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 ② 예루살렘 탈굼 II, III = The "Fragment(ary) Targum(im)"

여기에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것의 단편들만이 사본들에 보존되어 그 편집 판에 인쇄 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Cairo Genizah에서 발견된 Targumim<sup>36)</sup>

330년 Paul Kahle는 Cairo Geniza에서 발견된 팔레스틴 계열의 탈굼 사본 여섯 개의 일부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본문들은 이 고대의 탈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Kahle는 사본 A를 6세기 후반 또는 8세기 초로, 사본 E를 750-800년으로, 사본 B, C, D를 9세기 후반부로, 사본 F, G를 10-11세기로 추정한다<sup>37)</sup>. 이들 사본들을 상호비교해 보고 다른 팔레스틴계열의 Targum과 비교해 보면 Targum에 대한 다양한 개찬들(recensions)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환언적 표현들을 담고 있으나 그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Vatican Neophyti 1

이것은 1956년에 발견되었으며 1504년 이후로 추정되는 한 사본 안에서 발견되었다. 편집자인 A. Diez Macho에 따르면, 여기에 수록된 탈굼은 1-2세기의 기원을 가진 것이며 다른 것들은 탈무드의 시기(14-15세기)에 번역되었다고 한다.

### 2) 선지서에 대한 탈굼

선지서들에 대한 Targum Jonathan은 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바벨론 계열의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Hillel the Elder의 제자인 Jonathan ben Uzziel에게 돌려진다.

### 3) 성문서에 대한 탈굼

36) M. McNamara, *Targum and Testament*, 182-183.

37) 각 사본들의 내용은 McNamara, 182를 보라.

35) Tov, 150-151.

욥기의 탈굼은 Gamaliel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다(제1세기의 전반기). 또 이 Targum의 이른 source가 실제로 Qumran에서 발견되었다. 콤란에서 발견된 욥기의 탈굼은 문자적인 번역이며, 간혹 마소라 사본과 다른 한 Vulgate를 반영하고 있고 그 책의 마지막 귀절들(42:12-17)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인쇄되어 나온 욥기 탈굼은 콤란 본문과는 다르다.

에스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탈굼이 존재한다. Targum rishon(제1탈굼)과 Targum sheni(제2탈굼)가 그것인데 모두가 미드라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약의 Targum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구약의 탈굼들

오 경	Targum Ongelos (공식적) Codex Neofiti 1 (Palestinian) Targum Pseudo-Jonathan(Palestinian) 단편-탈굼(Palestinian) Cairo Geniza의 Palestinian Targum 조각들
선지서들	Targum Jonathan(공식적)
성문서들	다니엘서 및 에스라-느헤미야를 제외한 다양한 비공식적 Targum들이 이용 가능하다.

자료원: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72.

3. 70인역의 개정본들

Tov교수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것을 가리켜 70인역의 개정본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sup>38)</sup>.

- ① 70인역과 개정본이 공통성 있는 본문적 기초를 가질 때
  - ② 그 개정본이 70인역을 어떤 방향으로 교정할 때 일반적으로 70인역의 히브리어 대본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을 따른다.
- 또 70인역의 개정본이 나와야 할 원인을 제공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①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 사이의 차이점들
- ② 크리스찬들이 70인역을 지나치게 신봉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게 된 유대인들은 70인역을 금송아지 우상에 비할 정도로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③ 유대인들의 주석을 반영하는 역본의 필요성

1) Hexapla이전의 개정본들

아퀼라, 심마쿠스, 데오도치온이 여기에 속한다. 이 세가지 개정본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Hexapla와 여러가지의 파피루스의 조각들, Hexapla의 사본들의 난의 주, 그리고 교부들의 인용문에 보존되어 있다.

(1) Theodotion

Epiphanius에 따르면 Theodotion은 본도(Pontus) 출신이며 한때 Marcion의 제자였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한다<sup>40)</sup>. 또 제롬에 따르면 그는 에비온파였고, 아마도 에비온파 계열의 기독교를 한때 신봉했던 유대인이었다. 이레니우스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Epiphanius에 의해 Theodotion에 부여된 시기는 분명히 너무 이르게 잡힌 것이었으며 전체의 이야기가 Aquila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심쩍어 보인다. 같은 세기에 같은 Pontus 본토박이 두사람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산출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Theodotion이 에베소 유대인 또는 유태계 에비온파에 속한 자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헬라인들은 70인역을 존중하였으며, 특히 Aquila와는 폭넓게 다른 번역자, 즉 팔레스틴의 교육기관에서 엄격한 랍비에 의한 훈련을 받은 Theodotion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하였을 것이다.

Theodotion은 독자적인 번역본이라기 보다는 70인역에 대한 자유로운 개역이었다. 이 개역본은 전체적으로 표준 히브리어 본문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Theodotion의 욥기는 70인역의 욥기보다 길어졌고,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70인역

38) Tov, 143.

39) Tov, 143.

40) H. B. Swete D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p. 42.

의 특징을 이루는 Midrash적인 확장현상들이 사라졌다. 외경 및 기타 그날에 대한 Theodotion의 관행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는 다니엘서의 추가물들과 욥기의 보충적 구절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70인역을 따랐으나 정경 이외의 책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Theodotion은 헬라이어 구약 역본의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전체에 기여한 것 이외에도, 신약의 70인역 인용 및 A.D. 150년 이전의 기독교 작가들의 인용에서 그 독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널리 유통되었던 70인역의 개찬(recension)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다<sup>41)</sup>.

1952년 Nahal Hever에서 발견된 소선지서들에 관한 헬라이어 두루마리가 DJD에 출판되었으며, Barthélemy가 kaige라고 명명한 70인역의 초기 개정본이 담겨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개정본문이 다른 자료들(Hexapla의 제6칼럼 등)에 반영되어 있다<sup>42)</sup>. 이 익명의 개정본은 그 고대성에 있어서 Theodotion(그는 분명히 2세기 말에 살았을 것이다)에게 돌려진다. 따라서 Theodotion에 들려지는 번역 단위들(Theodotional units) 역시 이 개정본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본은 Kaige-Theodotion이라 불린다. 단, 그것의 여러가지 증언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일관된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것이 초기로 추정(1세기 중엽) 됨에 따라 오랫동안 학계에 편만해 있던 소위 원 테오도치온문제(proto-Theodotonic problem)가 해결되었다.

## (2) Aquila

Aquila는 Pontus생으로서 이방인이었다<sup>43)</sup>.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방풍습인 점성술을 버리기를 거부하여 출교를 당한다. 그후 그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Aquila의 번역 작업의 목표는 70인역을 폐기시키려는데 있었다. 특히 70인역이 기독교회의 견해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하였다. 성경에 대한 그의 접근방법은 그의 스승인 랍비 Akiba에게서 배운 것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철자들과 단어가 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sup>44)</sup>. 따라서 Aquila는 모든 단어, 불변화사(particle), 그리고 심지어는 형태소까지 정확하게 재현하려 하였다.

41) H. B. Swete, 458-459.

42) Tov, 145.

43) Swete, 31.

44) Tov, 146.

Friedmann과 Silverstone에 따르면, “개증자 Aquila”는 탈무드에 언급된 토라에 대한 탈굴의 저자인 “개증자 Onqelos”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비록 Aquila와 Onqelos가 밀접히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토라를 아람어로 번역하고 70인역을 개역한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양자의 번역이 모두 정확하지만, 헬라이어 번역이 아람어 번역보다 그 정확성에 있어서 훨씬 우수하다. Aquila는 그 문자적 번역 특성 때문에 그것의 히브리어 대본을 좀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sup>45)</sup>.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점은 Aquila역이 Jamnia학파의 주석적 전통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그의 본문은 70인역에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해석적 영향에 대립되는 유용한 평형추(makeweight)의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애매모호한 단어들의 의미와 관련된 경우 70인역은 너무 자주 어림짐작에 의존하는 반면 Aquila역은 양쪽 언어뿐 아니라 기타 섹슈어를 잘 알고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Aquila의 장점을 인식한 Jerome은 이를 Vulgate에 이용하고 있다. 더구나 70인역의 본문에 대해 Aquila가 행사한 영향력 때문에 고대 헬라이어 역본의 본문비평에 있어 그의 역본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 (3) Symmachus

Origen은 Symmachus를 알고 있었고 또 사용하였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심마쿠스는 에비온파였고, 이 사실은 Jerome에 의해 입증된다<sup>46)</sup>. Epiphanius에서는 그가 원래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심마쿠스가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상관없이 그가 에비온파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담긴 마태복음에 대한 에비온파적 주석이 4세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이다. 에비온파를 가리키는 용어인 Symmachians란 단어가 Ambrosiaster와 Augustine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Symmachus의 목적은, Jerome이 알아차린 바대로, 문자적 번역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sense)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ensum potius sequi). Hexaplaric MSS에 존속해 있는 그의 역본의 단편들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그의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Aquila역을

45) Swete, 458.

46) Swete, 49-51.

가지고 작업을 하였고 그것을 개작정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70인역과 Theodotion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sup>47)</sup>. Symmachus에서는 두가지의 정반대적인 경향이 발견된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주 정교함(Aquila처럼, 그는 kaige-Theodotion을 그의 개정본의 기저로 삼았다)을 보이는 반면 다른 편으로는 히브리어 언어들을 정형화된 문구로 번역하기 보다는 의미를 추구하여(ad sensum) 번역하였다. Symmachus의 바꾸어 말하기의 방식(paraphrasing manner) 때문에 그의 역본은 본문비평을 위해서나 해석적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학파의 주석적 경향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며, 그 의미의 충만함은 Aquila의 극단적 문자주의에 대한 교정적 기능을 발휘한다.

## 2) Hexapla

Aquila, Theodotion, 그리고 Symmachus가 각각의 번역본을 내어놓은 바로 그 세기에 Origen이 탄생하였다<sup>48)</sup>. 그의 나이 17세에 부친이 순교하였고, 18세에는 Alexandria의 교리문답학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그의 주의를 끌었고, 생산성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원어지식이 필요함을 즉각 알아차린 그는 히브리어 연구에 곧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오리젠은 구약을 원어로 읽기 시작하였고 眞本(true text)을 확정하게 해주는 자료들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리젠이 Hexapla를 내어놓은 것은 3세기 중반의 일이었다<sup>49)</sup>. 그것은 히브리어 본문과 그것에 대한 헬라이어 음역을 포함하여, 4개의 헬라이어 번역을 비교하도록 편집되어 있었다. 그는 모두 여섯 개의 column을 설정하여 첫번째는 히브리어, 두번째는 그 헬라이어 음역, 세번째엔 Aquila, 네번째엔 Symmachus, 다섯번째에는 註記가 달린 70인역을,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column엔 Theodotion을 수록하였다. 오리젠은 특히 제5 칼럼의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칼럼의 본문에는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 사이의 계량적 차이점들에 대한 註記가 달려있다. 헬라이어 본문에는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없는 경우 obelos(÷)로 표시하였다. 히브리어에는 있지만 70인역에는 없는 경우엔 제5 칼럼에 이를 추가하고(추가하는 경우 다른 칼럼들에서 끌어왔으나 주로 제6 칼럼에 있는 kaige-Theodotion에서 가져왔다) asteriskos(⊗)로

표시하였다. Hexapla는 주후 240년 또는 245년에 완성되었다<sup>50)</sup>. 오리젠의 작품은 70인역을 거부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증거를 거절하지도 않은 중간 입장을 견지한 결과이다.

## 3) Hexapla 이후의 개정본들

Hexapla 이후의 개정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Lucian의 것이다(312년에 사망)<sup>51)</sup>. 이 개정본은 19세기에 와서 그 소문자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루시안의 전승과 콤파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들과 사이의 일치점들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으나 단편들의 보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오도가능성이 있다. 70인역이 kaige-Theodotion 개정본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책들의 부분들에서 루시안의 전승은 원래의(original) 헬라이어 번역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 루시안의 개정본이 원래의 번역과, 루시안에 의한 개정본을 담고 있는 제2의 층과 합성되어 있을 경우도 가능하다. 어쨌거나, 이러한 책들에서 루시안의 개정은 중요한 히브리어 독법들을 반영하고 있다.

Lucian이 안디옥에서 70인역의 재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는 Hesychius라는 사람이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하고 있던 성경을 수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sup>52)</sup>. 하지만 루시안이나 헤시키우스의 재편집 작업은 도리어 오류를 더 늘렸을 뿐이다.

## 4. 구약의 시리아어 역본: Peshitta<sup>53)</sup>

Peshitta의 의미는 “the simple (translation)”이다. 이는 아람어의 한 방언인 시리아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한다. 여러 학자들이 Peshitta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규명해 내고는 1세기 또는 2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번역본은 Edessa의 왕인 Abgar IX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만든 것(2세기)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Maori를 포함한 학자들은 이 번역본에, 특히 토라에 있어서 유대적 주석의 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자들은 또 Peshitta와 Jewish Aramaic Targumim사이의 독특한 일치점들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책들에서

50)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997. 8, p. 136.

51) Tov, 148.

52)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136.

53) Tov, 152-153.

47) Tov, 146-147.

48) Swete, 59-60.

49) Tov, 147.

Peshitta의 주석은 양자만이 지닌 독특한 공통요소들에 있어서 70인역에 가까우나, 이런 일치점들의 성격이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사와와 시편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번역이 종종 공통적 주석 전통을 반영하나 잠언에서는 시리아어의 역자가 70인역을 그 기저로 두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Peshitta의 히브리어 source는 마소라 사본과 가까우며 70인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변이들을 지니고 있으나 Targumim과 Vulgate보다는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아마도 마소라 사본에서 가장 큰 변이들을 보이는 것은 역대기일 것이다. W. E. Barnes, G. E. Barnes는 페쉬타의 오경부분은 마소라 본문과 아주 가깝지만, 다른 부분은 70인역에 가깝다고 하였다<sup>54)</sup>.

#### 5. 구약의 라틴어 역본: Vulgate<sup>55)</sup>

교부 Jerome은 선행단계로서 시편의 고대 라틴역을 개정하고(이는 후에 Psalterium Romanum이라 불림), Hexapla의 시편을 개정("Psalterium Gallicanum" 한 뒤 390년과 405년 사이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Jerome은 그가 칭한바 소위 hebraica veritas(문자적 의미는 "the Hebrew truth" 즉, 히브리어에서 방사되는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유대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Vulgata, 즉 "통상적인 것"(a common one)이라는 뜻의 명칭 자체가 이 번역의 대중성의 정도를 반영해주고 있다.

Vulgate의 히브리어 source는 마소라 사본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Vulgate는 모종의 문학적 원리들(certain literary principles)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히브리어 대본을 가까이 추종하고 있다. Vulgate는 성경 주석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Jerome이 406-420년 사이에 쓴 소선지서, 이사와, 예레미야 주석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하다. 이들 주석은, 그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Jerome이 단지 마소라 사본만을 기저로 삼은 것이 아니라 70인역, Symmachus, Aquila 및 Theodotion(이 순서대로)의 주석의 도움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 6. 구약 아랍어 역본<sup>56)</sup>

5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70-71.

55) Tov, 152-153.

56) Tov, 154.

Saadia(882-942년)의 아랍어 역본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고대 번역본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최초의 중세 역본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단지 몇권의 성경책들만 포함된다. 최초의 인쇄판으로는 P. de Lagarde(Leipzig, 1867; Göttingen, 1876), J. Derenbourg(Paris, 1893) 및 P. Kahle(Leipzig, 1904)가 있다.

#### 7. 기타 역본들

Deist는 히브리어 본문 자체에서 번역되지 않은 역본들을 제2과정 역본들이라 하여, 여기에 Coptic, Ethiopian, Armenian, Arabic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Tov 등은 Arabic을 일차적 역본으로 분류하였는데, Deist자신도 Arabic은 히브리어 대본들에서 번역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Tov를 따르기로 한다. 그 나머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7)</sup>.

##### 1) 애굽어 역본들

모든 애굽어 번역들은 거의 대다수가 헬라어 본문들에서 번역되었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Coptic자료들의 대부분은 5세기 이전으로 소급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돌아 다니던 헬라어 본문들에 대한 가치있는 증거들을 구성한다.

##### 2) 이디오피아어 역본

4세기 중엽 Aksum(Abyssinia) 왕국은 기독교로 전향한다. 에디오피아 역본은 아마 이 사건 직후에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역본의 사본들은 13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개정 역사의 산물이다. 비록 처음에는 이 역본의 source text에 대한 견해들이 엇갈리었으나, 오늘날에는 헬라어 본문에서 번역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헬라어 본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는 전 학계가 동의할 수 있는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 3) 아르메니아어 역본

일찌기 아르메니아 왕 Tiridates II는 3세기 말에 세례를 받았다. 왕의 신하들도

57) F. E. Deist, Toward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217-226.

역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5세기에 이르러서야 아르메니아어의 알파벳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아르메니아어 번역은 그 이후에 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번역 본문들이 생기기 이전의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시리아어 역과 헬라이어역이 사용되었다. 이점에 착안하여 어떤 학자들은 아르메니아어 번역들이 시리아어 역문에서 번역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자들은 그 대본이 헬라이어 본문이라고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번역이 원래는 한 언어에서 번역되었다가 그 후에 다른 언어들로 된 본문들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고 본다. 전승에 따르면 그 최종적인 개정은 약 430년에 헬라이어 본문을 기초로 Mesrop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전승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의 번역은 시리아어에서 이루어졌고 나중에 어떤 헬라이어 본문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

#### V. AD 9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본문보존 역사

이 시기는 마소라 학자들의 활동에 의한 결과인 마소라 본문들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시대이다. 사실 마소라 학자들의 활동은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걸쳐 있었다<sup>58)</sup>. 중세의 모든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들을 조사연구한 B. Kennicott와 J. B. de Rossi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AD 10세기 이후의 모든 히브리어 성경사본이 비상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사본학적 증거들은 소위 마소라 성경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sup>59)</sup>. M. H. Goshen-Gottstein에 따르면 주후 70년 이후에 쓰인 모든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은 예외없이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보이며 이러한 통일성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마소라 학자들의 노력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0)</sup>. 마소라 학자들은 자음본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문의 형태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여백에 표시함으로써 그들이 전수받은 자음본문을 보존하였다.

또 마소라 학자들은 전수된 자음본문에 모음 부호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모음 부호 역시 그동안 존재해 왔던 자음본문에 대한 발음법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James Barr는 ① Yemen계 유대인들과 바빌론계 유대인들 사이의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독법전통이 현대의 언어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의 결과 그 상호간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힌 S. Morag의 연구와, ② Baba Bathra 21a-b의 인용문 등을 근거로 마소라 학자들의 작업 이전에 마소라 학자들이 표기하였던 모음체계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61)</sup>.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마소라 학자들을 일으키셔서 구약성경의 본문을 신실하게 보존하셨던 것이다. 원 마소라 본문들과 마소라 본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ov에 따르면<sup>62)</sup>,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라는 명칭은 일군(一群)의 사본들과 기타의 자료들을 지칭하며, 그것들은 모두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들 사본들의 많은 구성 요소들뿐 아니라 그 최종 형태까지도 중세 초기에 결정되었다. 이들 자료 그룹에 '마소라 본문'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이유는 거기에 추가된 마소라 장치(the apparatus of the Masorah) 때문이다. 이런 장치는, 자음에 추가되었는데, 이르게는 7세기의 전통에서 11세기까지에 걸쳐 발전되었다. 그 주된 발전은 티베리아의 Ben Asher家の 활동으로 더불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이란 용어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본문전통의 대표적인 것들 중의 단지 일부에 한정된다. 즉, 티베리아 계열의 마소라 학자들 중의 Aaron Ben Asher에 의해 그 최종 형태가 형성된 본문 전통을 지칭한다. 모든 출판된 편집본들과 대부분 사본들이 Ben Asher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기에 마소라 본문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 용어가 실제로는 마소라 전통의 일부 즉 Ben Asher의 전통에 국한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Goshen-Gottstein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T와 티베리아 MT를 구별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MT라는 용어를 쓸 경우, 그것은 실제로 티베리아 MT를 가리킨다.

마소라 본문이란 용어가 정확성을 결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마소라 사본이 어떠한 단일의 자료에서 증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소라 사본이란 세 부분적인 부분에서 상호간에 차이를 지닌 여러 자료들에 반영되어 있는 추상적인 단위(abstract unit)이다. 게다가, 마소라 사본의 원형(archetype)구실을 하였던 단일의 본문이 존재했는지의 여부조차 알기 어렵다. 마소라 본문이라는 용어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측면은 Cohen이 보여준 바와 같이, 마소라 각주가 마소라 사본의 그룹에 소속되는 모든 사본들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58) 김경래, 사본들, 64-65.

59) 김경래, "퀀타연구", 140.

60) 김경래, "퀀타연구", 141.

61) James Barr,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Eisenbrauns: 1987, 207-222.

62) Tov, 22-24.

따라서 마소라 본문들 또는 마소라 群/系列(Masoretic Texts or the group/ family of Masorah)과 같은 용어가 훨씬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Tov는 편의상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마소라 본문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소라 사본의 주된 구성요소는 자음들로서, 제 2성전기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 모든 다른 요소들이 첨가된 것은 중세 초기의 일이었다. 따라서 비록 마소라 사본의 중세적 형태가 상대적으로 후대의 것이긴 하나 그것의 자음구조(consonantal frame work)는 천년 이상이나 더 이른 시기에 존재하였던 고대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고대적 전통은 많은 자료들에 담겨 있으며 그 중에서 많은 본문들이 유대 광야에서 나온 것들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마소라 사본의 자음부분(제2성전기 이후로부터 추출됨)을 원 마소라(proto-Masoretic)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시대착오적으로 그 자음부분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마소라 사본에는 다음의 다섯부분이 포함된다.

- ① 여러세대의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준비된 마소라 뿐만 아니라 제 2성전기의 원 마소라 본문 속에서 이미 증거된 자음체계
- ② 모음(Vocalization)
- ③ 본문에 병행되는 요소들(Para-textual elements)
- ④ 액센트(Accentuation)
- ⑤ 마소라의 비평장치(the apparatus of the Masorah)

수많은 세기에 걸쳐서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태였는데, 그것은 2세기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 공동체들에 의해 권위있는 것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것의 자음 형태만 수용되었으나, 몇 세기가 지나자 그 모음, 액센트, 마소라 각주의 비평장치까지 함께 수용되었다. 이러한 수용성 즉, 초기의 유대주의의 주류에 의한 원 마소라 본문의 수용과 후기의 유대민족의 모든 본문들에 의한 마소라 사본의 수용 때문에 마소라는 광범한 수의 자료들 속에서

증거된다. 마소라 그룹에 속한 6천개 이상의 사본들이 현재 알려져 있다. 또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판본들이 마소라 사본에 기초하고 있다. Beit-Arié는 "

·1540년 이전에 존재했던 시대 측정이 이루어진 약 2,700개의 히브리어 사본들 중에서 6개의 사본이 10세기 이후, 8개가 11세기 이후, 22개가 20세기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동방본문들이다. 거기다가 게니자의 단편들 중에는 1200년대 이전으로 연대측정되는 동방사본들에 속한 약 60개 정도의 작은 단편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마소라 codex들은 단일의 페이지들이 책처럼 묶여진 것들로서 halakhot, 즉 "종교적인 교훈들"에 따라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런 종교적 교훈들은 자료들(materials), 수량 측정치들(measurements) 그리고 교정사항들(corrections) 같은 외부적 측면에 관계된 것이었다. 본문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삽입된 것들이다. Soferim("서기관들")은 자음본문을 기록하였고, naqdanim("모음전문가들", vocalization experts)은 모음과 액센트를 달았고, 마소라 학자들(ba'alé ha-masorah, "마소라의 대가들")은 마소라의 각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은 자주 하나의 본문층 이상의 본문층들(모음 부여, 액센트 표시, 마소라 각주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은 본문의 모든 구성요소들까지)에 관여하였다. 중요한 마소라 사본들은 <표 3>과 같다.

<표 3> 중요한 마소라 사본들

명 칭	기호	연대	내 용	유형/해설
Aleppo Codex	A	925	구약전체, 그러나 토라의 대부분이 분실	Aron ben Asher에 의해 작성된 히브리대학 성경 프로젝트(HUBP)의 대본
Lenigrand Codex	L	1008	구약전체	Ben Asher전통에 근접. 그러나 A만큼 근접되지는 못함. BHK 3판 및 BHS의 대본

자료원: Brotzman, 56.



명 칭	기호	연대	내 용	유형/해설
British Museum 4445	B	925	토라의 대부분	A 또는 L만큼은 ben Asher에 근접되지 못함
Cairo Codex	C	896	전후 선지서들	ben Asher 전통 보다는 ben Naphtali전통에 더 근접된 것
Sassoon 507	S	10세기	토라의 대부분	혼합된 본문(ben Naphtali + ben Asher)
Sassoon 1053	S'	10세기	구약의 대부분	일군(一群)의 가장 부주의하게 기록된 본문
Petesburg Codex	P	916	후선지서	바빌론 계열의 모음 부호들로 쓰여짐. 그러나 티베리아 계열의 모음전통이 반영되어 있음.

## Ⅶ. 소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10:35, 사40:8, 시 12:6-7 등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성경의 본문을 신실하게 보존해 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본문보존의 사역에 있어서 에스라 시대, AD 70년 전후, AD 9-10세기와 같은 중요한 분기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기록과정이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성막과 제1 성전을 중심으로 보존되어 온 구약성경의 각권들을 에스라를 위시한 서기관들을 들어 쓰여져 통일된 하나의 원본으로 모으시고 히브리어 서체에 있어서도 정방형으로 전환시키셨다. 또 AD 70년 전후의 본문의 표준화는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의 입장과 쿰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본문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의 손길이었다. 또한 AD 9-10세기의 마소라 사본은 에스라 이후의 proto-Masoretic texts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며 AD 70년을 전후하여 표준화된 히브리어 구약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이 세가지의 사건은 모두 Rabbinic Hebrew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이루어진 동질적인 본문보존의 사건이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처음 시작되던 시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본문을 놀라우리 마치 신실하게 보존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가지 형태의 구약사본들을 본문보존 역사의 흐름위에서 그 각각의 특성을 알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보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건네어 주신 그 옛 언약의 말씀을 명약관화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야 하겠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 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나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Ο νόμος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ἕως Ἰωάννου ἀπὸ τότε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εὐαγγελίζεται καὶ πᾶς εἰς αὐτὴν βιάζεται. Εὐκοπώτερον δὲ ἔστιν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παρελθεῖν ἢ τοῦ νόμου μίαν κεραίαν πεσεῖν. 눅 16:16-17). Amen !

## 제4장 각 학자들의 본문비평 방법론

우리는 지금까지 BHS, BHQ 및 HUB에 대한 올바른 사본학적 활용원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의 본문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아울러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답변으로서 성경에 기반한 본문보존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본문을 살펴보는 구체적인 절차를 취급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하여 논의된 방법론들의 동향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F. E. Deist, E. Würthwein, R. W. Klein, P. K. McCarter, Jr., E. R. Brotzman, B. K. Waltke, E. Tov의 접근법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 I. F. E. Deist의 방법론<sup>63)</sup>

Deist가 주장하는 본문비평의 방법론을 본문비평의 목표와 본문비평의 절차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문비평의 목표

본문비평의 목표에 관한 Deist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비평은 자필원본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교를 위한 자료의 문제를 보아서 그러하다. 본문비평은 동일본문에 대한 상이한 필사본들이 이용가능할 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의 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비평 자체가 이러한 기초에 의해 모든 구약에 대해 수행될 수 없다.

② 편집과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학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추기 위한 변경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③ 5경이 특정한 전승 집단에 의해 점차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자필본문이 형성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④ 정경론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문비평은 정경적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그 본문이 정경으로 수용된 시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그 본문 증거들이 기록된 시기추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문비평은 표준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콤란 두루마리의 역할이 고려되지 아니한다.

② 좀더 고대의 팔레스틴 및 바빌론 계열의 히브리어 본문들의 역할이 고려되지 아니한다.

③ 기독교 시대 이전 부터 존재하던 70인역의 역할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넷째,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재구성 하고자 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문법가는 팔레스틴형 모음조작을 갖춘 벤 아셀, 벤 납달리 본문을 재구성하기를 바랄 것이고, 성경 해석자는 최종적으로 편집된 히브리어 성경을 추구할 것이며, 주석가도 마찬가지로 최종 형태의 정경적 본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즉, 본문 비평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만의 본문(a single text)일 필요는 없다.

② 구약의 어떤 형태의 본문도 다른 형태들의 본문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자필 원본의 재구성은 구약 본문비평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④ 구약의 본문비평이 반드시 정경적인 문제와 연관될 필요는 없다.

#### 2. 본문 복원의 절차

본문복원의 절차는 예비작업의 수행, 본문의 계보에 대한 고려, 독법의 평가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본문비평의 예비작업들을 수행한다.

본문비평의 예비작업에는 자료의 수집, 배열, 본문의 재구성이 포함된다.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문자료들의 수집

중요한 것은 모든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자료라도 빠뜨릴

63) F. E. Deist, *Toward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N. G. Kerkboekhandel Transvaal, 1978, 226-261.

경우 중대한 정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 (2) 본문자료의 배열

본문자료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계열에 따르는 방법, 역사적인 연대들에 따르는 방법, 성격에 따른 방법(여기에는 어휘, 구문, 문체의 복잡성에 따라 통속적 본문들과 보수적 본문들로 나뉘어 진다)이 있다.

### (3) 본문의 재구성

본문 비평자가 A. D. 100년의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한편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그에게 입수 가능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그의 기저 본문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 기저 본문을 관련된 본문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는 또 다른 본문계열과 그의 기저 본문을 비교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작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기저 본문을 위한 critical apparatus를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본문 비평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는 곧장 재구성된 본문을 생산해 내기 시작한다. 그럴 경우 그가 하는 작업은 여러 본문 계열들과 본문 유형들을 비교하고 그러한 비교를 기초로 하나의 본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critical apparatus가 다양한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각기 다른 독법들을 반영해 줌으로서 그 재구성된 번역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한편, (1)-(3)의 예비작업은 히브리어 성경의 비평적 편집판을 사용함으로써 대치될 수도 있다.

### 2) 구약성경 본문의 계보를 고려한다.

Deist는 지역본문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재차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3) 독법을 평가한다.

독법의 평가 역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1) 사본들 내의 변이 독법들의 평가

가장 좋은 독법을 담고 있는 본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평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일반적인 규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평적 질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여러사본들에 제시된 각각의 독법이 문법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② 그 단어나 구가 그 문장 안의 구문론적 맥락에 들어 맞으며 그 passage의 보다 큰 문맥에 부합되는가?

③ 시문인 경우 문제시되는 독법이 시의 운율적 패턴을 파괴하는가? 그렇다면, 이 패턴에 좀 더 잘 드러맞는 다른 독법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문비평의 다음 단계로 다음 기준들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1) 사본들의 수를 세지 말고 비중을 달아 보라.

(2) 좀더 어려운 독법이 선호되어야 한다.

(3) 쉽게 납득이 가는 독법이 더 미약한 것이다.

(4) 여기까지 본문비평이 진행되면 본문들은 수용가능한 것들과 거절되는 독법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여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2) 번역본들의 변이 독법들의 평가

변이독법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역 번역"(reverse translation)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둘째, 그 번역의 문화적 배경에 친숙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셋째, 번역의 평가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

### (3) 최후적 조치로서의 자유로운 추정

본문 비평자가 아주 불분명한 본문을 대하였을 때 그에 관해 다른 동원가능한 사본적 조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 본문을 추정하게 된다. 이때 맹목적인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추정문이 정당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제시된 추정 독법에서 왜 현재 형태의 부패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그런 부패가 발생하였

는지를 밝혀 주어야 한다. 이것이 첫번째 검증 기준이다.

두번째 검증기준은, 추정본문이 ① 히브리어의 문법과 관용법, ② 문제시 되고 있는 책의 문법과 관용법, ③ 문제시 되고 있는 passage의 문법과 관용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검증기준은, 시문의 경우 추정 독법이 그 본문의 시적 구조를 정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는 없고 주의깊게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히브리어의 운율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II. E. Würthwein의 방법론<sup>64)</sup>

### 1. 본문비평의 목적

Würthwein은 본문비평의 목적을 원래의 본문에서 멀리 떨어진 본문 증거들을 비평함으로써 모든 변경들을 찾아내고, 가장 오래된 본문을 접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약의 개별적인 문장의 표현들은 처음에 작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주전 4세기 이후에 정경화 되었을 때 제시된 본문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경화의 종결 이후에는 필사자들이 문자적인 정확성을 기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 2. 본문비평의 절차

Würthwein은 본문비평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전승된 본문의 확정

전승된 본문의 확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① 다양한 본문 증거들의 중요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면 제일 먼저는 마소라 사본이요, 그 다음으로는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아퀼라, 심파쿠스, 태오도치온, 페쉬타, 탈굼, 벌게이트, 고대라틴어 역본, Sahidic, Coptic, 에티오피아어 역본, 아랍어 역본, 아르메니아어 역본의 순서이다.

② 필사자의 간과(오독, 오기, 빠뜨림, 이중기록)사항 또는 의도적 변경을 분리

해 낸다.

③ 사본들의 전체적인 특성을 도표로 나타내어 오류가 적은 사본이 전통에 서 있음을 인정한다.

④ 오래된 사본일 수록 더 중요하다.

⑤ 사본은 수(양)가 아니라 질(비중)에 의해 평가된다(*manuscripta ponderantur, non numerantur*).

⑥ ⑤의 원리는 번역본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 2) 전승된 본문의 검토

전승된 본문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마소라 사본을 특히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전승에 의해 계승된 최상의 본문증거이기 때문이다.

② 마소라 사본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본문증거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되어야 할 오류를 분명히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③ 언어적인 검토는 우선 문법적이며 어휘적인 가능성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가끔 일상적인 문법과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주석의 가능성도 주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행적 대구들을 고려해야 하고 셈어와 이와 유사한 언어들 연구해야 한다.

④ 본문비평의 한계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날 경우 교정을 받고자 하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⑤ 번역본들은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Biblia hebraica*에 실린 *critical apparatus*는 다만 암시들로서만 받아들여져야 하며 번역본들 자체를 접하면서 보충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번역의 오류, 오인, 사상적 이탈이 없는 것들만이(기준은 마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의 실제 이본들로서의 자격이 있다.

#### 3) 결 정

가장 원문에 가까운 본문증거의 선택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마소라 사본과 그 나머지의 본문증거가 일치할 때 그러한 전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② 마소라 사본과 기타의 본문에 부분적인 일치가 존재할 때 기타의 본문들은

64) E. Würthwein 저, 방석종 역, 성서본문비평 입문, 137-155.

이본들로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i) 마소라 본문은 원래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증명될 경우, 마소라 사본을 추종해야 한다.

ii) 여러가지의 다양한 독법들이 존재하고, 그 가능성이 동등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마소라 사본을 우위에 두나 언어적, 내용적으로 좀더 읽기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을 우선시 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iii) 마소라 사본은 언어적, 내용적으로 염려스럽고 불가능한데 반해 다른 본문 증거들은 만족할 만한 독법을 제공할 경우 마소라 본문을 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③ 마소라 사본도 나머지 본문도 언어적, 내용적으로 가능한 본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정에 의한 교정이 정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본문의 불확실성을 의식해야 한다.

4) 심리적 고찰

본문과손의 원인들, 잘못이 생긴 원인들에 대한 심리적인 고찰도 필요하다. 이는 본문비평의 작업들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기된 개선들에 좀더 강한 설득력을 주며, 전체적인 본문비평의 작업에 노력하는 총괄성을 부여한다. 본문비평이 무리한 조작을 방지한다면 그것은 적지않은 업적을 수행한다.

5) 본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본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신학과 본문비평은 가장 깊은 근저에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다. 문자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비평 작업이 참된 신학적 타당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뷔르트박인의 이 주장은 그렇게 명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종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그의 책의 개정판인 1988년의 영어판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sup>65)</sup>.

III. R. W. Klein의 방법론<sup>66)</sup>

R. W. Klein의 본문비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이해

Klein은 Biblia Hebraica가 변이들과 학자들의 제안을 수집해 놓은 유익한 책이지만 본문비평을 위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히브리어 문장전체를 70인역이나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70인역의 활용에 많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70인역의 활용은 다음 세 단계에 의한다.

1) 70인역의 원문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2) 번역자 자신에 의해 소개된 상이점들은 무시해야 한다.

3) 70인역의 번역자가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엔 그 본문과 마소라 사본중 어느것이 우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2. 보다 탁월한 본문이 있다.

Klein은 마소라 사본과 70인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끌어들이며 오경, 사무엘서, 이사야서에서 그 양자의 상호 관계성이 더욱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들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 탁월한 본문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역본문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모세 오경에 있어서 70인역은 마소라 사본과는 상충되고 사마리아 5경과는 공유되는 1600개의 본문들이 있다. 70인역은 애굽에서 취했던 히브리어 본문이 전승되는 동안 많은 변이들을 야기시켰고 사마리아 5경도 상당한 수식어들과 삽입구가 본문안에 첨가되었다. 마소라 사본은 독립된 역사를 지녔는데 바벨론 같은 어떤 고립지역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모세 5경에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LXX = 사마리아 5경 ≠ 마소라 사본의 경우라도 LXX와 사마리아 5경이 반드시 탁월한 것은 아니다.

② 사마리아 5경 ≠ LXX = 마소라 사본의 경우에는 LXX와 마소라사본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2) 사무엘서(와 호세아)의 경우 마소라 사본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된다.

① 70인역의 원본은 마소라 사본보다 훨씬 탁월하다.

② 마소라 사본이 변조되었지만 그 원본의 재구성은 애굽과 팔레스틴의 지역 본문들의 전승에 대한 연구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용이화 된다.

3) 이사야서의 경우 마소라 사본은 완전하게 확대된 본문이며, 70인역이 더욱

65) Ernst Würthwe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121-122.

66) R. W. Klein, 구약본문비평, 117-152.

짧고 원본에 더 가깝다. 콤파에서 발견된 16개의 히브리어 필사본들은 모두 확대된 본문을 가지고 있다.

### 3. 본문선정의 원리

Klein이 제시하는 본문비평의 외적, 내적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외적원리

Klein은 먼저 '필사본들은 수를 세지 말고 그 무게를 달아라'고 한다. 그는 Würthwein이 제안한 중요도의 순서(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치온, 콤파역본, 이디오피아 역본, 아르메니아 역본)을 인용하면서, 사해두루마리들, 사마리아5경, 70인역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탈굴이나 70인역의 파생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차이점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만일 차이점이 두개 이상의 필사본이나 번역본에서 나타나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소라 사본은 매우 존중해야 하며, 상당한 주의력을 가지고서 살펴본 후에야 변경될 수 있다. 다음 항에서 소개되는 내적 고려 사항들에 기록된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엔 마소라 사본이 더 나은 본문이다.

#### 2) 내적원리

Klein은 내적원리를 다음의 세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 ① 다른 본문들의 기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을 선택하라.
- ② 더 짧은 본문일 수록 우선적이다.
- ③ 더 어려운 본문일 수록 우선적이다.

### IV. P. K. McCarter, Jr.의 방법론

McCarter는 본문비평의 필요성을 옹호하면서 다음의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67)</sup>.

- ① 본문비평은 마소라 사본이 분명한 경우엔 필요없다.
- ② 비록 마소라 사본이 부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원래의 독법

(original reading)을 보존하고 있다.

- ③ 본문비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④ 본문비평의 결과들은 미미할 뿐이다.
- ⑤ 본문비평은 자의적(arbitrary)이다.

이와같이 본문비평의 가치에 대해 확신이 가득찬 McCarter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비평의 목표

McCarter는 본문비평을 가리켜 본문의 응집성(integrity)을 드높이기 위한 과업이라고 한다. 그것은 그 본문의 현존하는 사본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다. 본문비평자는 이들 필사본들을 상호 비교하여 그것들 사이에 있는 다양성들(divergences)에 관한 결론을 유도한다. 그 목표는 보다 이전의, 보다 진짜의 -따라서 보다 우월한- 본문 형태를 회복하는 것(recovery)이다. 즉, 본문비평의 목표는 여러가지의 현존하는 필사본들이 증거하고 있는 원초적 본문(a primitive text)을 결정하는 것이다.

#### 2. 본문비평의 원리<sup>68)</sup>

McCarter가 제시하는 본문비평의 일반적 원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문비평자는 먼저 본문 부패의 특징과 유형들을 잘 알아야 한다.
- 2) 가장 중요한 원리는 *Dificilior lectio potior*(더 어려운 본문일수록 더 우월하다)와 *Utrum in alterum abiturum erat?*(어느 것이 다른 것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큰가?)이다. 앞의 원리는 흔히 오해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더 어려운 독법이 더 선호된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변별적이다. 우리는 적합하고, 의미있고, 우아한 독법을 원한다. 우리는 일상적 독법을 원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원치도 않는다. 두번째의 원칙은 이와 유사하다. 일상적인 그리고 친근한 독법은 비일상적이고, 우아하고, 변별적인 상당어구가 생길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역은 얼마든지 성립가능하다. 이들 두가지의 원칙은 환원주의자들이나 다소 조소어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같이 *Melior lectio potior*(더 나은 독법이 더 우세하다)라는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67) P. K. McCarter, Jr., *Textual Criticism*, 13-18.

68) McCarter, 20-25.

3) 각각의 경우를 독특한 것으로 취급하라.

4) 사고(thought)를 활용하라. 이것은 Housman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는 훌륭한 본문비평 작업의 열쇠는 결국 상식(common sense)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신약비평가인 Richard Bentley 역시 이렇게 주장한다: “이성(reason)과 사실들(facts)이 수백 개의 필사본들보다 더 유력하다.” 이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다른 원리들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3. 본문비평의 기준들

McCarter가 제시하는 본문증거들의 평가단계는 다음과 같다.

평가의 목적은 다양한 증거들의 독립성, 진정성, 가역성(retrovertibil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독립성의 기준은 본문비평의 시작단계에 적용된다. 전적으로 다른 증거들로부터 파생된 증거들 즉, 독립성이 결여된 증거들은 배제된다. 진정성과 가역성은 히브리어 성경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많은 증거들이 원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각각은 그것이 히브리어 독법에 대한 신빙성있고 모호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 원리들이 비 히브리어 성경에 적용될 때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비히브리어 성경이 독립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독법들에 대한 번역적 변이들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독법들은 진정성의 기준에 의해 배제된다. 또 번역이 너무 자유롭고 환언적(pardphrastic)이어서 원래의 히브리어 표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히브리어로 전환될 수 없는 독법들은 가역성의 기준에 의해 배제된다. 비히브리어적 본문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독립성(independence)

본문비평에 있어서 한 독법이 다른 독법에서 파생되었거나, 조정되었거나, 의존하는 경우 그것은 2차적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본문의존양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언어로 쓰여진 사본이 같은 언어로 쓰여진 다른 사본에 의존하는 경우...예컨대, 소문자 사본들 중의 하나가 대문자 사본에 의존하는 경우
- ② 한 언어로 된 사본이 다른 언어로 된 다른 사본에 의존하는 경우...예컨대 라

틴어 구역은 70인역에 의존한다.

③ 비히브리어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에 의존하는 경우...예로써 탈군은 마소라 사본에 의존한다.

(2) 진정성(authenticity)

고대 번역본들 중의 하나가 마소라 사본과 다른 독법을 반영하고 있을 때, 본문비평자는 보통 그 독법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그것을 마소라 사본과 비교하여 어느것이 원래적(original)인지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역자가 번역의 과정에서 마소라 사본과 동일한 사본을 개선하거나 교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탈된 독법은 원본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무가치하다.

(3) 가역성(可易性)

가역성이란 하나의 독법을 히브리어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은 모호성과 연관되는 기준이다. 모호성(ambiguity)은 가역성을 저해한다. 예컨대 70인역의 환언적 번역 특성과 탈군에 들어있는 신학적, 설명적 확장들은 모호성을 증가시킨다.

4. 본문비평의 절차

이상의 원리에 따라 McCarter가 제시하는 본문비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들의 평가

(1) 모든 증거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라.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다. 그러나 BHS를 활용하면 이 작업이 훨씬 용이화 된다. 그렇지만 BHS의 인용문들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본문비평가는 다음의 자료들을 그의 책상위에 구비하여야 한다.

- ① BHS
- ② 칠십인역
- ③ Peshitta
- ④ Targum
- ⑤ Vulgate

- ⑥ 사마리아 5경(5경 연구시)
- ⑦ 또 콤파나 기타지역에서 발견된 필사본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수하라.

- (2) 증거들을 언어 집단별로 대조하라.  
이 과정을 통하여 고려해야 할 사본의 수를 축소해 나갈 수 있다.
- (3) 70인역을 그 子譯들(daughter translations)과 비교하라.
- (4) 마소라 사본을 비-그리스어 번역본들과 비교하라.
- (5) 비히브리어 사본을 히브리어로 재번역하라.
- (6) 독립성이 낮은 증거들을 버려라.

2) 독법의 선택

- (1) 외적 기준은 믿을만 한 것이 못된다.

외적 기준으로서 첫째로 더 오래된 사본이 낫다는 기준을 더 오래된 사본이라 해도 거기에 개찬활동과 조화(동화)의 경향, 한 본문계열에 의해 다른 본문계열이 확장적 부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두번째로 사본의 숫자도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비중을 달아보아야 한다. (Manuscripta ponderantur, non numerantur = Manuscripts are to be weighed, not counted).

- (2) 내적 기준만을 의지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판단력과 상식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것은 사실 상 상식을 일반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것이 다른 것을 변경시켰는가(Utrum in alterum abiturum erat?), 즉 어느 것이 다른 것을 파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큰가 하는 것이다.

② 두번째는 첫번째 것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긴 한데, Difficilior lectio potior(The more difficult reading is preferable) 또는 Lectio difficilior praeferenda est(The more difficult reading is to be preferred)라는 원리이다. 그러나 어떤 독법이 기괴하고(bizarre) 불가능한 것일 경우는 예외이다. 더 어려운 독법의 원리는 쓰레기(garbag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세번째는 Brevior lectio potior(The shorter reading is preferable) 또는 Lectio brevior praeferenda est(The shorter reading is to be preferred)라는 것이다. 더 짧은 독법이 우선시 되는 것은 고대 본문을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데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④ 보다 문맥에 더 어울리는 것이 더 나은 독법이다. 이때 문맥이란 문맥, 문체, 언어, 사상, 역사, 연대기 등을 종합한 문맥을 의미한다.

⑤ 문체를 개선한 독법은 의심스럽다.

⑥ 현대화된 독법들은 의심스럽다.

⑦ 모순 점들을 해결하는 독법들은 의심스럽다.

⑧ 성경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병행되는 본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일치 되는 것들 보다 선호될 수 있다.

3) 추정(Emendation)

때때로 위의 모든 과정들을 밟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비평자에게 그것이 원래 전수된 독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그는 추정 독법을 제안할 수 있다. 과거에는 추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이었다. 그러나 추정은 유용한 도구로서 원초적 독법이 보존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의 질문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문비평자는 자신의 추정을 버리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고 선언해야 한다.

- ① 제안된 추정 독법이 전수된 모든 독법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그것은 그 문맥이 드러 맞는가?

V. E. R. Brotzman의 방법론

Brotzman은 본문비평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 순서는 ① 증



거의 수집, ② 변이들의 평가, ③ 가장 좋은 독법의 선택, ④ 본문에 대한 추정이다. 단, Brotzman은 BHS의 critical apparatus의 범위 안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 1. 증거의 수집

본문이 주어진 경우, 연구하고자 하는 구절이나 passage에 대한 BHS의 apparatus에 수록된 변이들을 해독하고 모두 기록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변이들과 번역본의 기저가 되는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는 또는 반영하지 못하는 번역본들의 독법들이 포함될 수 있다. 번역본들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재번역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문비평자는 그 본문의 변이들이 주석에 있어서 결정적이나 아니냐에 관한 예비적 평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2. 변이들의 평가

본문비평이 예술인 동시에 과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본문비평의 과정에는 주관적 요소들과 객관적 요소들이 동시에 개입된다. 본문비평을 전적으로 과학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고대적 본문들의 전승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본문에 대한 질문을 판단할 때에 필연적으로, 부분적이긴 하겠으나, 주관성을 떨 수 밖에 없게 한다. 이중 여러가지는 신약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저작자들이 쓴 다른 고대적 문서들의 본문비평에도 역시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원리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씩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먼저 주어진 본문에 대한 변이독법들의 평가는 외적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외적 증거에 대한 학자들의 태도는 상이하다. 어떤 학자들은 마소라 본문의 독법들에 대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번역본 등의 독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가치를 낮게 매긴다. 또 어떤 이들은 마소라 본문도 여러증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Brotzman은 마소라 본문이 절대적 우월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본문증거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마소라 본문은 다른 본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틀림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기준은 내적 기준에 선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2) 내적 원리에 의한 본문의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첫번째로 내적 원리는 일반적인 서기관의 경향들을 알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문의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변화의 방향이 알려지면, 원래의 독법(original reading)이 결정 가능하다.

② 두번째의 일반적인 내적 증거의 원칙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법의 난이도의 수준이다. 여기서, “보다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이 선호된다. 이 원칙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더 단순하고 분명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데에 착안하고 있다. 이 원리는 다른 원리와 연계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실수로 본문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McCarter가 말한 바대로 “더 어려운 독법은 그것이 쓰레기일 경우일 때엔 선호되지 아니한다.”

③ 세번째의 내적 증거의 원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이 독법들의 길이에 관계된 것이다. 즉, 좀더 짧은 독법(lectio brevior)이 흔히 선호되며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서기관들에게 일반적으로 본문에 단어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본문을 명료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려는 확장의 경향(the normal scribal tendency to amplify)이 있기 때문이다.

④ McCarter는 내적원리로 몇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원리들이 아니라, 더 어려운 독법의 원리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불과하다. 그는 무엇보다 ① 한 독법의 문맥적 적합성, ② 모순들을 해결하는 독법들, ③ 병행본문들에 관한 특수한 규칙을 들고 있다. 독자는 이 마지막 세가지의 원칙들의 사용이 엄청난 주관성을 동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컨대, 모순점들을 해결해 주는 독법들이 전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그 엄청난 주관성을 회피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이들 원칙들은 다 같이 사용되어야 하며 분별력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3. 가장 좋은 독법의 선택

이 과정은 앞의 절차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본문의 평가에 의해 가장 좋은 또는 가장 원래적인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독법이 알려진다. 이때에 어떤 독법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러한 선택의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이차적인 독법들의 발전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왜 특정의 독법이 선호되고, 왜 2차적인 독법들은 원래적인 것이 아닌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절차를 추가하자면 여러가지의 독법들이 주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명쾌하게 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본문비평이 주석에 공헌하게 된다.

#### 4. 본문에 대한 추정

대부분의 경우, 본문비평의 결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해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가지의 종류로 구별된다.

1) 첫째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법들이 동등하게 지지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때 어떤 학자들은 추정을 시도하지만 Brotzman은 이 상황에서의 추정은 필요치도 않고 권장할 만 하지도 않다고 한다.

2) 두번째의 경우는 어떤 본문증거도 의미가 없을 때인데, 이때에는 추정이 사용된다.

#### VI. B. K. Waltke의 방법론<sup>69)</sup>

Waltke는 구약본문의 비평에 있어서 엄격히 규정된 방법이 완성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독단성과 주관성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칙이 나타났다고 한다.

1) 히브리어 사본들과 고대역본이 일치할 때, 그 본문은 원래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2) 히브리어 사본들과 고대역본들이 차이를 드러낼 때, 좀더 난해한 기록(lectio difficilior)이라 다른 기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연해 주는 기록을 선택해야 한다.

3) 히브리 사본들과 고대 역본들 사이에 더 나은 기록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첫번째 원칙에 따라서 마소라 본문을 지지해야 한다.

4) 히브리어 사본들과 고대 역본들이 서로 다르거나 어느 것도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본래의 기록을 추측하여도 좋다. 그러나 추측을 하더라도 반드시 원문에서 현존하는 본문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본문의 파손과정을 보여줌

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들은 귀절 전체에서 파생된 어떤 기대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귀절 전체의 해석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다.

#### VII. E. Tov의 방법론<sup>70)</sup>

E. Tov교수가 제시하는 본문비평의 목표절차 및 내적 외적 평가기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 1. 본문 비평의 목표

성경본문에 대한 연구는 수세기에 걸친 그것의 발전, 필사와 전수, 그리고 독법들과 본문들의 생성 과정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속에서 본문비평가는 이들 본문들의 상이점을 보여주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히브리어 본문들과 번역된 본문들로 부터 수집한다. 이들 차이점들 중에서 어떤 것은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다른 것들은 보다 초기 단계에서 생긴, 즉 문학적 성장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학자들은 독법들을 다른 본문자료들 특히, 마소라 사본과 비교함으로써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생겨난 그 독법들을 구별해내고 평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생겨난 독법들에 한정되며 보다 초기 단계에 생성된, 즉 그 책의 문학적 성장과정에서 생겨난 독법들은, 비록 그것들이 본문증거들 속에 포함된다 할찌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평가가 성경의 원본에 포함된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2. 본문비평의 절차

본문비평학은 기술적 측면(descriptive aspect)과 실제적 측면(practical aspect)의 양자를 다 지니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는 많은 세대에 걸친 성경본문의 필사와 전수가 포함된다. 실제적 측면들은 다양한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들과 이들 차이점들이 전개되어온 양상을 다룬다. 본문 분석은 두 영역에서 나누어진다. 첫번째의 영역에서는 히브리어 사본에서 발견된 성경 본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반영된 성경 본문을 취급한다. 두번째의 영역은 추정 비평(conjectural criticism)으로서 성경

69) B. K. Waltke, "구약의 본문비평", 엑스포지터스 성경연구주석(신구약총론), 280.

70) Tov, 287-292.

본문을 추정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사본들에서나 고대의 번역본들에서나 어디서든 만족할 만한 본문증거를 전수하고 있지 못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Barthélemy는 첫번째 영역을 가리켜 “내적 본문비평”(critique textuelle interne)이라 하였고, 두번째를 “외적 본문비평”(critique textuelle externe)이라 하였다. 첫번째 영역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본문비평이라 할수 있고, 두번째 영역은 첫째 영역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본문비평은 두단계로 나뉘어 진다. 첫번째 단계는 히브리어 변이들의 수집과 재구조화이고(Tov책의 2, 4, 7장), 두번째의 단계는 그것들의 평가이다(Tov의 제6장). 변이독법들의 고려 대상에는 수용된 형태인 마소라 사본과 다른, 모든 히브리어 및 기타의 재구성된 세부사항들이 포함된다. 마소라 사본과 다른, 히브리어 및 재구성된 세부사항들에는 철자, 단어 및 단어의 순서상에서의 첨가(pluses), 삭제(minuses), 차이점들 뿐만 아니라, 모음체계와 단어구분에 있어서의 차이들까지 포함된다. 마소라 사본은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이기 때문에 본문상의 변이들을 묘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그것의 내용들에 관해서는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선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경 사본들에서 히브리어 변이들을 수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다소 더 복잡한 것은 탈무드, midrashim, 그리고 쿰란 문헌들에 인용된 성경의 변이 독법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번역들에서 변이독법들을 재구성하는 것 역시 똑같이 복잡한 절차이다.

히브리어 및 번역된 본문들에서부터의 변이들의 수집이 이루어지면, 학자들은 그 것들을 보통 마소라 사본에 있는 병행본문들과 비교하는데 그것은 독법a가 다른 모든 독법들 보다 더 선호할 만 하다고 하거나 다른 독법들 모두는 독법에서 파생되었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은 원본에 담겨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하나의 독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1개의 독법이상을 원래적인(original)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절차는 주관적이다.

### 3. 본문에 대한 외적 평가기준

본문비평에 있어서 몇가지의 외적 평가기준에 대한 Tov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자료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는 다른 기준에 대하여

Tov는 본문의 지위를 논하는 모든 주장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독법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고대 역본의 경우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재구성되었다면 히브리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사마리아 오경과 쿰란본문들도 마소라 사본보다 적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어떤 본문증거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선호될 수 있는 통계학적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개별 독법들의 평가에서 그런 판단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중세기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그것들의 변이들이 대부분 후기단계에 생성된 것이기에, 모종의 편견(우위성)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 2) 마소라 사본에 대한 선호

일반적으로 마소라 사본에 대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적 정보이며, 그런 통계적 정보가 개별적 사례들에 있어서는 드러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마소라 사본은 70인역이나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 3) 폭넓은 증언의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도 Tov는 유익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도 역시 *manuscripta ponderantur, non numerantur*를 지지한다. 비록 소수의 독법이라 해도 잘 증언된 변이들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4) 본문 증거들의 연령

Deist는 연령이 높은 본문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Tov는 이것이 의견상 옳아 보이나 실상은, 맞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필사기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그들의 원자료를 더 잘 보존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소라사본을 전수한 공동체는 약2000년간 사실상 변경되지 않은 성경 본문을 남겼다. 그러나 쿰란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1QIsaa(B.C. 1세기이후)는 마소라 사본의 이사야(10세기)보다 원전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J. S. Semler도 신약에서 후기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 4. 본문에 대한 내적평가기준

본문비평에서 흔히 응용되는 내적 평가기준들에 대한 Tov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더 어려운 독법 우선(lectio difficilior)의 원리

이론적 견지에서 보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실제로 “어려운” 독법들을 더 쉬운것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Tov는 이 원리들을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더 짧은 독법 우선의 원리

lectio brevior/brevis potior의 원리는 완벽한 논리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Tov는 lectio difficilior와 lectio brevior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백분율로 따져 볼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 3) 병행본문들에의 동화(조화)

이 기준은 Barthélemy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것은 더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리에 종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화된 독법이 “더 쉬운” 반면에, 다른 독법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 4) 해석적 수정

이 역시 Barthélemy에 의해 주장되나, 더 어려운 독법의 원리에 종속되는 것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부적합하다.

5) Tov는 위에서 언급된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다음의 오류를 담고 있다고 한다.

① 어떤 기준들에 깔려 있는 논리는 문제시 될 수 있다(lectio difficilior, lectio

brevior).

② 추상적인 원리의 적용은 객관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없다.

③ 위의 비평 원리들은 수많은 독법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④ 본문비평의 원칙은 내적 증거에 제한된다.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비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타당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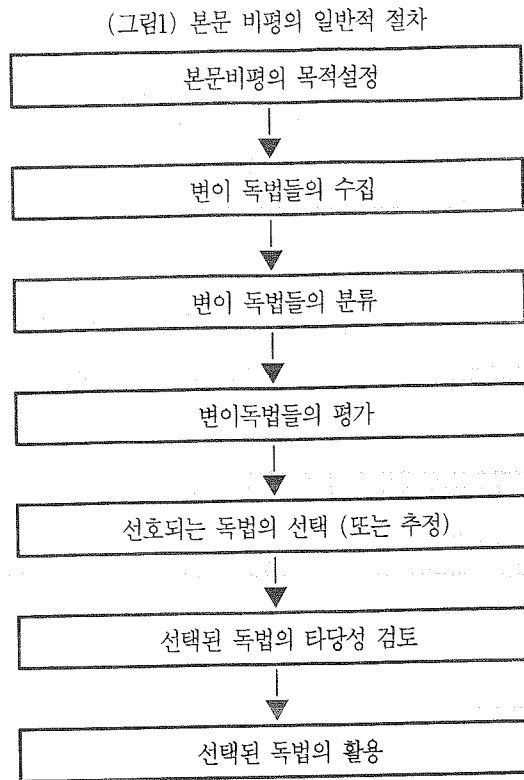
결국, 문맥적으로 가장 잘 부합되는 독법의 선택이 본문비평의 주된 과업이다. 이 절차는 극도로 주관주의적인 것이다. 비록 추상적인 규칙들 역시 자주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전-사마리아 본문들과 사마리아 5경은 조화적 변경(harmonizing alterations)을 담고 있기에 마소라 사본이나 기타의 본문들에 비해 이차적이다. 사마리아 오경에 있어서의 언어적 교정, 이데올로기적 변경, 음성학적 변화 역시 이차적 표징들이다. 또 콤파본문들의 맥락적 적응(contextual adaptations) 역시 2차적 표징들이다. 임의적 생략, 중자탈오(haplography), 유사문미(homoioteleuton), 유사문두(homoiocarcton), 중복오사(dittography), 자매어들(doublets), 석의적(맥락적 및 신학적) 변경들, 본문에의 삽입, 특히 난외(행간) 주해(glosses)와 보간적 가필(interpolations) 등에 의해서도 원래적인가 2차적인가가 판정된다.

추정역시 하나의 선호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자법상의 차이나 동의어적 독법들은 정의상 선호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5장 현행 본문 비평 원리들의 문제점

현재 본문비평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평의 절차를 제4장에서 취급된 일곱 학자들의 비평 방법으로부터 종합해 보면 (그림1)와 같은 절차들로 정형화 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위의 각 단계별로 기존의 본문비평의 원리가 갖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본문 비평의 목적

본문비평의 목적에 대하여 Würthwein은 가장 오래된 본문을 재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McCarter는 그 목표를 원초적 본문(a primitive text)의 결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기적으로 이른 본문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 Würthwein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Tov는 Maas, Postgate, Kennedy 등이 공통적으로 original form을 찾으려 한다는 점과 하나의 본문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sup>71)</sup>. 먼저 본문의 original form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본문, 원초적 본문, original form 등은 일종의 유사표현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히브리어 성경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본문비평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의해 쓰여진 구성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전의 구전 단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본문증거에 제시된 구성문의 단계만을 목표로 한다. 본문분석은 이 증거를 넘어서는 구전 또는 문학적 단계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보다 더 이전 시대라는 그 가정은 단지 논리적 연역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며 증명되지 않는다. Tov의 논증은 콤파 자료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본문형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콤파 본문을 통하여 본문의 다중성이 확립된다. 원-마소라 본문들, 전-사마리아 본문들이 재구조화 되긴하지만 이것들 역시 성경본문들 중 상대적으로 뒤늦은 시기의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더 이른 시기로 근접시켜 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본을 대치하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단순한 목적은 달성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BC 4-3세기의 본문조차 그 재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목표가 불과 몇 개의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적인 수준에서나 올바른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이다.

Tov의 두번째 비판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본문을 확립하려(establish)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함축하는 바는 본문 비평가들이 원본에 포함되어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다양한 사본들속에 있는 변이 독법들 중에서 선택하여 비평적 내지 선택적 편집판을 확립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재적으로나 모두 불가능하다. 고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Vorlage는 만족스럽게 재구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원래의 독법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기

71) Tov, 287-290.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현존하는 비평적 편집판들의 대부분이 외교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외교적 편집판들을 통해 주석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평가자들의 결론을 만족시키는 최종적 산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본문증거 들에 기초하여 자신의 견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 II. 변이 독법들의 분류

F. E. Deist는 변이독법의 분류 기준으로서 본문의 계열, 역사적인 연령, 본문의 성격(통속적 본문과 보수적 본문)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역사적 연령이나, 본문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지역본문이론을 전제하고 있는 본문의 계열에 따른 분류이다. Brotzman 역시 이 개념을 자신의 책에서 도입하고 있다.

E. Tov는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기계적으로 바벨론적(마소라 사본), 애굽적(70 인역의 히브리어 Vorlage) 사마리아적(사마리아 5경) 성격의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쿨란에서의 발견물등을 증거로 삼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원래 5경에 대한 접근에서만 타당하였다. 그러나 지역본문이론의 추종자들은 전체구약에 이를 적용한다. 5경 이외의 어떤 성경이 사마리아적 요소를 띠고 있다는 말인가? Tov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본문이론은 두가지 요인의 합성에 기인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첫째 요인은 그 세가지의 본문이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는 신약사본학의 족보론적 방법의 도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쿨란에서의 발견물들은 이 세가지의 category에 통합되지 아니하고 다섯가지의 본문 집단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이 주장이 폐기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지역 본문이론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은 그것이 각 사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변이독법들의 분류에 있어서 Tov교수가 지적하는 또다른 사항은 지나치게 변이독법들의 차이점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본문 비평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의 상황에 따라 일치점 역시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변이독법들의 평가와 선택

본문비평의 절차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많은 방법론상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단계이기도하다.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다.

### 1. 더 오래된 사본이 더욱 우선된다는 기준

Würthwein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McCarter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믿을 만하지 못한 기준이다. McCarter는 그 이유로서 더 오래된 사본이라 하여도 거기에는 개찬활동과 조화(동화)의 경향, 한 본문계열에 의한 다른 본문계열의 확장 현상이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혀 주고 있다.

### 2. 비중의 원리

F. E. Deist, E. Würthwein, R. W. Klein, P. K. McCarter는 한결같이 사본의 수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비중을 달아보라고 한다. 사본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엄청난 주관성을 개입시키고 있다. 몇가지의 본문경향이 발견될 때 어디에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편견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또한 이것은 학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공약인 통계학의 원리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심각하게 왜곡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변이들의 결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통계적 원리가 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중을 달아보아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왜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J. A. Bengel이 최초로 주장하였다.

### 3. 더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리

필사자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소위 lectio difficilior의 원칙도 J. A. Bengel이 만든 원리이다. 이것이 구약의 사본학계에 편만해 있다. Deist, Würthwein, Klein, McCarter, Brotzman, Waltke는 이구동성으로 이 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리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증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소수의 필사자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잘못 필사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 Tov 역시 이 '더 어려운 독본 우선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백분율로 따져볼 때 얼마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 4. 더 짧은 독본 우선의 원리

Klein, McCarter, Brotzman이 이 원리를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본문에 단어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본문을 명료화 하려하는 확장적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한다 만약 서기관들이 자의로 말씀에다 덧붙이는 경향이 있을 정도의 담력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생략하려는 경향, 또는 요약하려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콤파스에서 발견된 어떤 사본들은 비록 마소라 성경의 전승에 기초하고 있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필사활동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유의 사본은 이차적인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문법 및 문맥상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E. Tov는 *lectio brevior*의 기준 역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백분율로 따져볼 때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5. 이성 또는 상식 지상주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cCarter는 본문비평의 원리로서 따로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여 "사고(thought)"를 활용하라고 말해 놓고는 훌륭한 본문비평 작업의 열쇠는 결국 상식(common sense)이라고 한다. 그는 신약비평 학자인 Richard Bentley의 "이성과 사실들이 수백개의 필사본들보다 더 유력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 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다른 원리들이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본문비평의 내적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판단력과 상식이며, 자신이 제시하는 원칙들은 사실상 상식을 일반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McCarter는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주관주의, 자의성, 합리주의, 인본주의, 본문증거들에 대한 불신의 경향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약성경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겠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 6. 심리적 기준

우리가 앞 장에서 살펴본 본문비평학자 일곱 중에서 유일하게도 E. Würthwein은 심리적 고찰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필사자가 기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경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다음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알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심리적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요, 심리라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항상 가변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되며,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7. 추정

Deist, McCarter, Brotzman, Waltke, Tov는 추정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의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기준이다. 또한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가장 많이 표출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에 있는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고 하신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태도는 인간이 계시의 말씀을 장악하려는 소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인간의 무지가 성경의 변개를 초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가 사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에 근거한 것이요, 그것은 오산이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우리는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도 있다.

## 제6장 문제점의 해결방안

우리는 제5장에서 현행 본문비평학의 방법론이 구약 본문 말씀의 보존역사를 고려하거나 구약사본의 특징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문학작품이나 신약사본학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본문에 대한 올바른 사본학적 활용원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 비현실적 가정들의 현실화

우리는 4장에서 각 학자들의 본문비평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대표적인 일곱 학자들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두가 비현실적 가정들 위에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는 검증이 안된 무작위적이고 자의적인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기존 본문비평가들의 본문비평이론에 대한 해결의 첫단계로서 그들의 논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정들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원본 부조화의 가정→원본 조화에의 신앙

본문비평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통용되는 작업 원칙중의 하나인 '더 어려운 독본 우선'의 원리는 따지고 보면 원본에 가까운 본문일수록 동화되지 않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덜 매끄럽고, 더 이해하기 곤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J. J. Griesbach(1745-1812)에게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같은, 성경의 원본은 조화되지 않는다는 '원본 부조화 가정'이 이 본문비평 원리의 배후에 놓여 있다<sup>72)</sup>.

이러한 원본부조화의 가정은 '더 짧은 독본 우선의 원리'의 배후에도 놓여 있다. Griesbach는 '더 짧은 독본 우선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짧은 것이 더 어렵고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이상할 때 라고 한다<sup>73)</sup>. 아울러 긴 독본이 불확실하고, 거칠고, 부연설명하고, 역설적이고, 불경건하게 들리고, 오류 적일 경우엔 '긴 독본이 짧은 독본 보다 우선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

72) 변종길, 신약총론, 90.

73) 변종길, 68.

바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긴 독본도, 짧은 독본도 아니라 더 이상하고 불경건하고, 거친, 더 불확실한 본문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은 비성경적인 가정을 배격한다. 우리는 원본 부조화 가정을 수용할 수 없다. 본문비평가들은 원본의 조화성을 믿는 듯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원본부조화 가설의 기반 위에서 비평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논리적 비일관성이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원본조화에 대한 믿음위에서 개혁주의적인 사본학을 정립하여야 하겠다.

E. J. Young에 따르면<sup>74)</sup> "현대신학자들이 무오한 성경원본에 대한 교의를 중요치 않은 지옥의 연방으로 제쳐버리는 거만한 태도는 아주 놀랄만 하다. 그들은 너무 독단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며 또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너무 자신 만만하게 느끼는 나머지 자신들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믿는다면 영감의 교의를 수용하고 그 교의가 이끄는 함축적인 의미를 추종해야 한다. 영감에 대한 성경적 교의를 더 이상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그들이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쓰는 것을 중단한다면, 전반적인 종교생활에 일관성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Young의 말처럼 사본학 역시나 올바른 신앙고백의 바탕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흠도가니에 일곱번 단련한 은같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음을 믿는다(시12:6).

#### 2. 사본 불확실성의 가정→사본 확실성의 원리

본문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사본을 대할 때 그것이 마치 문제의 덩어리인 양 대하고 있다. 더 어려운 독법의 원리, 더 짧은 독법의 원리, 이성 도는 상식 지상주의, 심리적 기준, 추정과 같은 사본학의 원리들은 모두 사본 불확실성의 가정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본의 문제점들은 그리 심각한 것들이 아니다. J. A. Bengel은 John Mill(1645-1707)의 희랍어 신약성경의 편집판에 충격을 받고 신약사본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였으나 그의 결론은 "변이 독법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가 적고 또한 복음적 교리의 어떠한 조항도 요동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E. J. Young 역

74) 에드워드 영 저, 김수민 역,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98-100.



시 같은 입장을 보인다. Young에 따르면<sup>75)</sup>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성경의 사본들은 아주 명확한 정확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원본처럼 그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딤후 3:16).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사본안에서 발견되는 실수들은 협소한 것들 뿐이며, 주의깊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그것들은 확실한 정도로 제거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3장에서 논의된 구약성경의 본문보존 역사의 관점에서 사본 불확실성의 원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 3. 계시에 대한 이성 우위의 가정→이성에 대한 계시 우위의 신앙

계시에 대한 이성 우위의 가정은 현대 본문비평학의 “이성 또는 상식지상주의”나 “추정의 원리”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거의 전 본문 비평원리에 전제되어 있다. 그들의 입장대로라면 사실 계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더 명확하고 밝은 이성과 사고(thought)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분명한 계시가 필요한단 말인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원본도, 사본도 아예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더구나 필요조차 없는 사본들을 가지고 비평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고 싱거운 존재들이 되고 만다.

우리의 입장은 그들과 정반대이다. 우리는 이성에 대한 계시우위를 믿는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기에 계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계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계시 보존사역을 믿는다. 비록 사본을 전수하는 인간에게 있는 연약과 죄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적인 사본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사본학은 본문보존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불신앙적 가정의 선호→신앙적 가정의 선호

현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수는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신앙적 가정위에서 출발한 것은 비학문적이며, 신앙적 가정위에 근거하면 할수록 그 만큼 더 비학문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전제를 두기를 부끄러워 하고 꺼리며 그것을 멀리, 조롱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학문은 어찌피 가정위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출발선상에서 보면 그들의 가정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요, 신앙의 가정 역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어찌서 둘 중의 한쪽의 가정은 더 선호될 만하며 다른 쪽의 가정은 회피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견을 떠나서 그것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자의 죄악된 고집의 반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더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리, 더 짧은 독법 우선의 원리, 이성/상식 지상주의, 심리적 기준, 추정과 같은 원리들은 하나 같이 불신앙적 가정 우선의 원리위에 건립되어 있다. 사본에 대한 불신앙적 가정의 선호가 여기에 편만해 있다. 사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사본에 대한 이러한 현대 신학자들의 태도는 한가지 중대한 오류를 빚어내고 말았는데 그것은 성경문헌의 일반계시화의 오류이다. 성경문헌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와 다를 바 없는 일반 문헌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존사역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사본에 대한 불신앙적 가정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특별한 책으로 본다. 그것은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가 아니고 삼국지도 아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책이다. 그것은 일반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은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우리는 당신의 계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의 손에 의해 전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존사역을 믿는다.

개혁주의적인 사본학의 원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개혁주의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의 설정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다른 접근법들은 상이한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야 한다. 불신앙적인 가정에 기초한 학문은 결코 더 학문성이 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하며 학문적 방법론 전반에 걸쳐 왜곡된 접근법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현실화를 피하여야 한다. 신앙적 가정은 더욱 더 현실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을 추종하게 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본 논문의 제3장에서 유도되는 결론이기도 하다. 학문의 가장 깊은 근저에서는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개혁신학은 우둔한 옛사람의 지성이 아닌 거듭난 지성에 의해 전개되는 학문이어야 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죄악되고 부패한 인본주

75) 에드워드 영, 96.

의적 지성을 배격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지성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신자의 이성(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상관도 없다.

## II. 본문비평 목적/목표의 현실화

E. Tov는 제4장에서 현행 본문비평학이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개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잘 설명해 준다. Tov뿐만 아니라 F. E. Deist 역시 본문비평이 자필원본을 재구성하려 한다든지, 정경적 본문을 재구성하려 한다든지, 표준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본문비평학이 설정하고 있는 작업목표에 대한 Tov와 Deist에 정당한 비판위에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원본에 대한 성숙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우리는 원본에 대한 성숙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에 있어서 계시(啓示)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모세 5경에서 시작해 보자. 토라에 대한 모세의 자필원본은, 출애굽 세대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었음을(창 15:13, 행 7:6) 감안할 때, 그것이 애굽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áenz-Badillos는 자신이 쓴 전문적인 히브리어 역사에 관한 단행본에서 히브리어 역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는 히브리어의 역사의 시작을 BC 20세기에서부터 잡고 있으며 성경히브리어 시대의 하한선을 BC 587년까지로 잡고 있다<sup>76)</sup>. 이에 따르면 우리는 토라의 자필원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400년간의 애굽생활은 애굽어의 영향을 받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광야 차세대 역시 광야 제1세대의 직계 후손들이었으므로 그 영향권 아래 있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토라의 자필원본이 솔로몬 시대에나 에스라의 시대에는 히브리어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알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이 솔로몬시대나 에스라 시대의 히브리어로 up to date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토라의 보존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도 이미 제3장에서 언급되었다. 성막, 성전안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모세언약에서의 문서보관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율법의 교육은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레 10:8-11,

신 33:8-10). 토라가 성막, 성전과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속죄제사의 희생이 드려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 5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사사기나 룻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사시대에는 열왕기나 역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포로기, 포로후기의 각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계시의 volume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 계시의 volume이 더 커졌다. 또 계시사의 과정속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 각권이 하나의 정경으로 통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통합체가 단순히 자필원본 각권을 한데 모아서 기계적으로 제본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가능하게 한다. 그럴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원본' 개념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Tov나 Deist가 비판하는 바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계시사의 각 세대는 그들이 가진 고유한 계시의 volume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재생되어 왔을 것이다. 언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utscher 역시 히브리어 역사에 관한 단행본을 편찬 저술하였는데 그는 성경 히브리어의 시대가 고대 성경히브리어(오경의 시문, 초기 예언서), 표준 성경히브리어(성경의 산문들), 후기 성경히브리어(역대기와 기타의 책들)로 三分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7)</sup>. 또 우리네 구약사본의 현실로써 말하자면 우리는 성막이나 제1 성전기의 구약의 본문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가진 쿨란 본문이 가장 이른 것이며<sup>78)</sup> 마소라 사본은 성경 히브리어 시대의 것이 아니라 랍비 히브리어(Rabbinic Hebrew, RH) 시기의 것이다<sup>79)</sup>.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생각할 때 계시사의 경륜을 따라 이해하여야 하겠으며, 히브리어의 역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구약 본문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기반위에서 개혁주의적인 사본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플라톤주의적 발상으로 원본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는 것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고 추상적인 철학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사적 경륜의 관점에

77) R. Kutscher ed.,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12.

78) 김정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53.

79) Sáenz-Badillos, 51.

76) A.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52.

서 원본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사본학의 정당한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본을 지니고 있지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만일 하나님께서 플라톤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한 원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원본을 상상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원본의 존재는 모세의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방식(신 34:6, 유 1:9)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원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각시대의 청중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시대의 청중들이 계시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청중에의 적응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제 사본학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보자. 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본문비평학이라는 용어의 정당성 부여 먼저 검토해 보자. 이 용어는 일반 문헌비평학에서 차용된 개념이다. 즉, 세례받지 못한 개념이다. 본장의 I에서 언급된 바처럼 성경사본들은 의심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지 사본은 원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필사자인 인간의 연약과 죄성을 인정하는 작은 비중의 한도내에서 그것은 비평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성경'사본학'이라는 용어가 좀 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80)</sup>. 본장의 I에서 논의된 바대로 우리의 사본학은 사본들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속에서 그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 사본학'의 목표설정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단일의 원본이 지닐 수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표현들을 사본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여기고 이를 선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variant readings의 다수성은 결코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communication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다수의 variant readings는 paraphrasing effect를 산출함으로써 우리가 갖는

그러한 communication에 있어서의 한계를 잘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variant readings를 통해 원본에 대한 풍성한 표현을 주시으로써 원본을 완벽하게 기술하시는 하나님을 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본들에서 제시되는 다수의 variant readings를 통해서 필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두 변수를 통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있음을 시인하여야 하겠고 바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사본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사본학의 임무와 목표/목적은 첫째로는 다수의 variant readings의 일치성을 기초로 원본의 존재를 굳게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둘째로는 이러한 다수의 variant readings를 소재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인 필사 과정에서의 인간의 연약과 죄성의 요인들을 구별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는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과 영적분별력에 기초한 거듭난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

### III. 성경사본학의 올바른 작업원리의 정립

본장의 I, II에서 논의된 바를 기초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사본학의 작업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을 구한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다. 그분께서 계시, 계시의 기록, 계시의 전수와 보존, 계시의 해석, 계시의 적용의 주체이시다. 인간이성이 주체가 아니다. 거듭난 이성, 거듭난 지성은 사본학에서 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을 의지하는 지성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도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 지성의 한계와 무지와 부패성, 죄악을 시인하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그러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본학의 과업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이다.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좌지 우지하며,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물론 행위에 속하며, 교만이요 허세이다. 그러한 옛 사람의 부패한 지성은 성경 사본학의

80)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4-5.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합리성의 기준으로 끼워맞추다가 스스로 불신에 떨어지며 멸망에 처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섬기는 일을 제대로 감당 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멸망케 할 것이다. 우리의 사본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항방없는 인간 이성의 자율성에 말씀의 과업인 사본학적 임무를 내어 맡길 수 없다.

## 2. 본문보존 역사의 관점에서 각 사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다.

이 원리를 고려함이 없는 내적원리나 외적원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것일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사본학은 인간의 연약성과 부패성이 하나님의 신실성과 대결하는 현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 부패, 파손, 훼손되지 아니한다(요 10:35). 마귀는 그 체계와 간사함, 교활함으로 인간의 연약과 죄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가감, 왜곡, 변질시키려 한다. 마치 사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도 마귀의 체계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사본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다.

## 3. 변이독법들의 차이점보다 일치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각 사본은 문제들의 덩어리가 아니다. 각 사본들에 반영된 인간의 연약과 죄성은 미소한 영역에 불과하다. 사본에 대한 불신의 원리보다는 신뢰의 원리가 앞선다.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사본이 일반적인 세속문헌이 아닌 성경문헌인 한에서는 그러하다.

변이독법들에 나타난 표현의 다양성과 일치성은 원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많은 변이독법들을 통한 환인효과(paraphrasing effect)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의 풍부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본학자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요, 특권이기도 하다.

## 4. 변이 독법들의 평가와 성경해석학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한다.

이는 변이 독법들의 평가에 있어서 보다 난해하고 어려운 독법은, 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일치하는 다수 독법들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사본학의 과업이 성경해석학의 테두리안에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개의

사본에 있는 변이 독법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해석의 차원에 속한다. 각 사본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본학의 작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사본학자가 변이 독법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자신의 결론을 내세울 때, 그가 먼저 각각의 변이 독법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변이 독법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그릇되었다면 그의 사본학적 주장이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맥, 즉 맥락적 자질들(contextual features)이다. 문맥없이 의미는 없다. 의미는 문맥안에 있다. 고로 문맥은 해석의 준거들('frame of reference' of interpretation)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사본학이 성경해석학의 일부라고 판단한다. 사실 기존의 사본학은 그것의 좌표와 위치에 대한 규명이 없는 존재였다. 기존 사본학의 온갖 종류의 잘못된 원리들은 성경해석학적 맥락을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변수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인간 이성의 자의성으로 흘렀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계시가 인간의 이성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자기처소를 떠난 '천사'의 본질은 마귀이다. 아무리 천사라도 그것이 자기처소를 떠났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아래 있으며 저주아래 있다. 기존의 사본학은 통제변수를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산출한, 자기처소를 떠난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사본학의 주된 임무인 변이독법의 평가와 변이 독법간의 관계의 규정은 모두 해석학적 작업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경해석학적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그 본연의 고유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 5. 어떤 독법을 선택하였을 때의 해석학적, 주석적 함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독법의 선택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상충되는 심각한 신학적 모순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위의 4의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예컨대, 사마리아 오경의 분파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배격되어야 한다. 또 Rheims-Douay English Version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을 마리아의 후손이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마리아 승배를 유도하기 위한 종파적인 신학의 산물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사본학적 작업이 주경신학과의 관련성을 갖으려면 독법의 선택이 주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어야 한다.

## 6. 다른 사본에 비해 마소라 사본에 제일 큰 비중을 부여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경보존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도인 바울은 유대인이 나온 이유가 첫째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았음이라(롬 3:2)”고 한다. 우리는 이로써 신약성경이 유대인에 의한 구약성경본문의 보존에 대해 확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소라 사본의 우위성에 대한 한 사례를 들자면 E. R. 딜레박사의 히브리왕들의 연대기 연구에 있어서 70 인역보다 마소라 사본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sup>81)</sup>. 그는 특히 오므리에 관한 연대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면에서 히브리 사본의 본문이 원래의 것이며, 헬라어 사본의 번역자는 오므리의 통치에 관한 이중적인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sup>82)</sup>.

한정건박사는 마소라 사본에 대한 사본학적 비중을 싣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83)</sup>.

① 가장 확실하다는 사본을 선택(현재는 MT의 Leningradensis)한다.

② MT가 확실하게 틀렸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에 이 독법을 반대하거나 추측에 의존해서는 안된다(MT의 것이 다른 것의 support를 받으면서 자리에 맞고 이해할 만한 문장이라면 여기에 굳이 반대하여 다른 것과 비교 대조하여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다. 즉, MT 자체 내에 이해 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정이 있을 때에만 본문비평을 하는 자세를 취한다).

③ MT와 다른 본문이 서로 뚜렷이 다를 때에, 그리고 양쪽이 다 그럴듯한 경우에는 MT를 선택한다.

④ MT의 것이 문맥에서 이탈된 뜻을 지니는데 반해 다른 본문은 만족스러운 증거를 가졌을 때에만 MT의 것이 필사자의 오류로 생각할 수 있다.

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왜 필사자가 이런 오류를 일으켰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 오류를 범한 필사자의 심리 등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⑥ MT와 다른 것이 모두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반대로 가능성이 짙은 본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독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나, 그것도 추측에 불가하므로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⑦ 확실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본문에 수정을 가하지 말고 foot note에서 처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 7.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시인한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사본학적 과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사본학이 모든 사본학적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는 변명이거나 핑계의 수단 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보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성실히 보고하는 것도 사본학이 담당하여야 할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사본학적 자료로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끼워 맞추서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 하는 것이 정직한 길이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자료가 주어질 때 그러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처리의 절차를 거쳐서 정직한 답변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본학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직성이 될 것이다. 정직성에 기초하지 않은 학문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학문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81) 에드윈 R. 딜레 저, 한정건 역, 히브리왕들의 연대기, 83, 120-127.

82) 딜레, 126.

83) 한정건, 구약총론(강의안), 15-16.

## 제7장 결론

우리는 제1장에서 원본과 사본, 사본간의 관계, 사본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하면서 계시의 기록과 보존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전제에 입각하여 본문보존의 역사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사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1947년을 분기점으로 그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947년 이후 콤파본문이 발견되면서 사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1947년까지의 사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소위 지역 본문 이론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1947년 이후 콤파본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콤파본 자료들을 지역본문 이론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이 1947년 이후에 계속 있어왔고 그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E. Tov, Freedman 등은 좀더 정밀한 연구를 통하여 콤파본문이 다섯가지의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연구결과를 인해 사실상 지역본문 이론은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구약원본의 양상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de Lagarde와 P. Kahle에 의해 전개되었다. de Lagarde는 마소라 사본들이 모두 하나의 원본에서 복사되었을 것이라 보고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최초의 초고들을 재구성하면 원본이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P. Kahle는 Cairo Genizah의 본문들과 Talmud에 인용된 성경의 변이들에 기초하여 마소라 사본의 원본을 가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두 모델의 차이점은 de Lagarde가 단일성에서 다수성으로의 흐름을 주장한다면, Kahle는 본문이 다수성으로 단일성으로 발전해 갔다고 주장한 점이다. E. Tov는 de Lagarde의 원본이론을 수용하면서 현존하는 자료들로서는 하나의 원본에서 다수의 사본으로 흘러간 흐름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존하는 사본들의 특성을 본문보존 역사라는 흐름의 틀 안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BHS, BHQ의 본문으로 제시된 Leningradensis 사본이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본문보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서에 있어서만은 심한 부패성을 보이고 있어서 ben Asher의 전통에 보다 더 근접한 Aleppo Codex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으리라고 판단된다. 또 앞으로 출간될 Aleppo Codex에 근거한 HUB는 기존의

BHS와 BHQ의 한계들을 많이 개선해 주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본들에 있어서 불일치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미소한 세부사항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본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도 그와같이 비상한 섭리중에 본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제4장의 각 학자들의 본문비평 방법론에서는 F. E. Deist, E. Würthwein, R. W. Klein, P. K. McCarter, Jr., E. R. Brotzman, B. K. Waltke, E. Tov의 접근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들의 방법론들을 학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본문비평의 작업은 ①본문비평의 목적설정 → ②변이독법들(variant readings)의 수집 → ③변이독법들의 분류 → ④변이독법들의 평가 → ⑤선택되는 독법의 선택 또는 추정 → ⑥선택된 독법의 타당성 검토 → ⑦선택된 독법의 활용의 일괄단계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소개된 학자들의 주된 본문비평 원리들을 뽑아서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본문비평학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더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리, 더 짧은 독법우선의 원리, 이성 또는 상식 지상주의, 심리적 기준, 추정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들 원리들 속에 담겨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주관주의, 자의성, 그리고 본문증거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경향, 원본부조화 가정, 계시에 대한 이성우위의 태도 등이었다.

제6장에서는 이에 대해 개혁주의적인 사본학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계시역사의 경륜의 관점에서 원본의 양상을 규명하였다.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발전역사, 율법교육의 기능을 맡은 레위인들의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본문비평 작업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을 구한다.

셋째, 본문보존 역사의 흐름속에서 각 사본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넷째, 변이독법들이 차이점보다는 일치성에 비중을 둬으로써 원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다섯째, 보다 난해하고 어려운 독법은 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일치하는 다수독법들의 관점에서 해명한다.

여섯째, 변이독법의 평가와 검증에 있어서 성경해석학과의 긴밀한 연관성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일곱째, 정보의 부족에 의해 해명될 수 없는 사본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본학 자체의 한계를 시인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사본들의 특성의 파악과 사본간의 관계 및 원본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자면 사본들에 나타난 인간의 의도적·비의도적 실수의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이에 대해 마소라 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BHK1, 2, 3판, BHS, BHQ의 접근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BHS와 BHQ 그리고 HUB의 경우 critical apparatus를 제시하는 방법과 그 자체의 한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껏 길러주시고 도와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상 성경공부와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조완철 목사님, Tov교수님께 신임받는 제자이시며, 흔쾌히 자신의 학문적 삶과 자료를 내보여 주신 김경래 교수님,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한정건 교수님, 기도와 자료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진섭 교수님, 3년간 신대원 생활 동안 학업과 생활을 지도해 주신 변종길 교수님, 3년동안 신학에 대한 올바른 orientation과 목회적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어 주신 고려신학 대학원의 교수님들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되었다. 부족함과 실수와 문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져야 하겠고, 선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에렐의 3위1체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다. 3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꾸준히 내조해 준 아내에게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신대원 시절에 나에게 아내와 성국기와 회진이를 선물로 주셨다. 또 3년간의 학업에 벗이 되어준 신대원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 I. 외국문헌

1.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 Kyung-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94.
3. El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4. Henry Barclay Swete D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New York: KTAV Publishing Inc., 1968.
5. Martin Mcnamara, Targum an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6. F. E. Deist, Toward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N. G. Kerkboekhandel Transvaal, 1978.
7. Ernst Würthwe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in Deutsch, fifth ed., 1988),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8. P. Kyle McCarter, Jr., Textual Criticism: Recovering the Text of the Hebrew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9. Angel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0. Eduard Yechezkel Kutscher,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Leiden: E. J. Brill, 1982.
11. James Barr,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Eisenbrauns: 1987.
12. F. M. Cross, S. Talmon 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II. 번역문헌

13. Bruce K. Waltke, "구약의 본문 비평", 엑스포지티스 성경 연구주석, 신구약총론,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2.
14. 에른스트 뷔르트파인 저, 방 석종 역, 성서본문 비평입문(독일어: 1973, 제4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15. Ralph W. Klein 저, 김 기천 역, 구약본문비평, 서울: 임마누엘 출판사, 1988.
16. Edward J. Young 저, 김 수민 역,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7. Edwin R. Thiele 저, 한정건 역, 히브리왕들의 연대기,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 III. 국내문헌

18. 김 경래, 사본들을 통해보는 성경(구약성경 사본학 글모음),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6.
19. 김 경래, 유대인의 보고,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20. 김 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쿤타연구" 성경원문연구, 1997. 8, 서울: 대한성서공회.

21. 김 경래, "구약성경 본문전래과정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997. 8, 서울: 대한성서공회.
22. 민 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23. 한 정건, 구약총론(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1997.
24. 변 종길, 신약총론(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1998.

## 高麗神學報

제30집

등록번호 / 제카 3-226

1999. 2. 20 인쇄

1999. 2. 23 발행

발행일 / 이병호

편집장 / 김승현

편집위원 / 소재일, 임경희, 오상호, 현성아, 서지현, 고신석

발행처 / 고려신학대학원 54대 원우회

☎☎☎-1155 충남 천안시 삼용동 40-1번지

고려신학대학원원우회 편집실

Tel. (0417)557-5131, 558-5131(교환224) Fax. (0417)557-2986